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4 10월 가을호
통권 18호

선교사의 친구되기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요와 실제
정태화 선교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2-14

제20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선교사의 친구되기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요와 실제

강사: 정태화선교사

약력)》 러시아 연해주선교사
Universal Care 선교회 협력선교사 및 고문

찬양 :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참석대상 : 1. 선교적 열정이 있는 공동체 및 개인 누구나 2. 선교사멤버케어 사역자 및 협신자

일시: 2014. 10.18 (토) pm 5시

장소: 부천 예음교회 <주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번지 청원프라자 6층>

목차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정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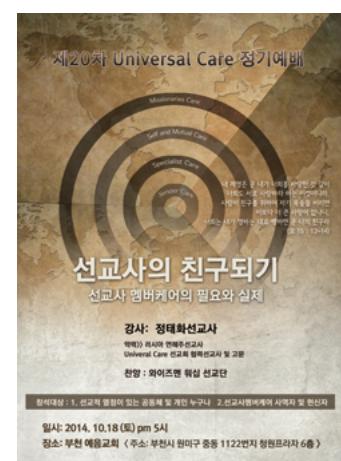
편집인 김문배

발행일 2014.10.18

주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선교사의 친구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되게 하소서

Designed by 강가영

Prologue 6 2015 Universal Care 선교사 대회를 꿈꾸며

선교사의 친구되기 8 황필남 선교사 멤버 케어에 대한 성경적 고찰

12 정태화 선교사 선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후방지원에 대한 연구

16 조나단 강 박사 선교사 멤버케어의 당위성

21 황필남 선교사 선교사의 멤버케어에 대한 이론과 실제

29 송성규 목사 나는 선교사입니다

32 강다니엘 선교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 탈진과 멤버케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해

38 김우설 선교사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40 김아글라 선교사 9년차 선교사가 느낀 선교사 케어

42 진리 안 선교사 멤버 케어를 떠 올렸을 때 스쳐 지나간 생각 몇가지

(서구와 한국교회의 차이)

기획 특집 44 몽골 소브링 파브릭스 "세상 끝" 교회 새성전 건축

선교지에서 온 편지 48 배성호 선교사 선교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 소식

57 신동주 선교사 신동주, 이경면 선교사 7월 소식

60 정도연 선교사 그 시간 (출32:1-6) 시

61 주바울 선교사 B국 서신

63 엄하늘 선교사 다함이 없는 사랑

66 선교사 기도제목

Universal Care 70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72 Universal Care

2015 Univeral Care

선교사 대회를 꿈꾸며

정진호
Universal Care 대표
연세U치과 원장



Universal Care 선교회는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의 친구가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며 더 나아가 후방 선교사로 살아 가기로 작정한 선교회입니다.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과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다 보니 이젠 선교사를 살리는 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선교사가 죽어가고 또 어느날 갑자기 추방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참호 속을 나가지 못하는 군인이었고, 두려움 속에 총을 쓸 수 없는 아픔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자신들을 잊어 가고 있는 고국 땅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열국을 향하여 드리기로 결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지를 나간 귀한 이 심령들이 이제 연락이 끊기고, 물자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자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연약함을 내어 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이 들에게도 역시 우리 친구 선교사들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무기력함과 두려움은 이들은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또 하나의 능력 대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정기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 선교

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와 실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과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쳐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왜냐면 주님과 다시 만날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들을 돋기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구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누고,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여가를 나누고 목숨도 내어 줄 수 있는 데에 까지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린 선교사의 친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지친 병사들이 잠깐 뒤로 물러나 힘을 키울 때입니다. 이젠 전선에서 잠깐 나와 몸을 추수될 때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재충전의 자리를 함께 만들길 소원합니다. 100명의 선교사와 친구가 되길 원하는 공동체와 현신자들을 초청합니다. 이들이 회복되어 재충전될 때 열방은 진동하며 그리스도의 깃발이 만방에 날릴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할 이슬람의 문이 열릴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속히 열리길

소망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 : 12 ~ 14

멤버 케어에 대한 성경적 고찰

황필남 선교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교문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
International advisor



오늘날 현대에 와서 선교사들의 탈진들과 아픔들을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 했다. 그것이 멤버 케어(Member care)이다.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부상당해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돌보고 다시 회복시켜 남은 사역을 승리하도록 돋고 재생시키는 사역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성경이 열왕기상 19장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수많은 이론과 영적 기술적 방법이 있지만 항상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훗날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된다. 멤버케어의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본인은 본 주제를 다루면서 선교사 케어에 대한 원론적 내용으로 성경의 원리들을 다루고 싶다.

1 대승후에 온 엘리야의 심각한 영적 낙심과 탈진현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던 엘리야는 대승후에 심각하게 영적추락을 했다. 그리고 죽기를 원했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참신을 믿지 않음과 참선지자가 아니란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승리한 후에 광야 하나님앞에 죽기를 원하는 그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그 답지 않은 모습, 그답지 않은 언어, 그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과 같다. 잘나가던 때의 엘리야가 아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네리던 능력있던 기도,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해 버리던 강이 있고 뱃장가진 믿음의 사역자가 아니다. 그는 이상하리만큼 힘(Power)

을 일어버린 영적 환자가 되어 버렸다.

2 선교사들이 왜 이런 영적 환자들이 되는가?

종종 선교사들과 목사들은 사역에 온 힘을 모두 소진한 후에 극심한 영적 육체적 체력 저하 현상을 맞는다. 물론 온 힘을 다하지 않은 선교사들과 죽을 힘을 다해 사역하지 않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증세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죽기 살기 달려가서 생명을 다해 사역한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국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마찬가지다.

선교사들에게 이런 극한 탈진, 극심한 영적 저하 현상, 영적 추락의 경우는 이유들이 있다. 브엘세바에서의 엘리야나 것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 지시기 전의 예수님이나 모두 동일하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에 애합왕으로부터 엘리야가 자기의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에 보복하기 위해 사신을 파송하여 사생결단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였다. 엘리야처럼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악한 정치 상황, 공무원들의 핍박, 비자문제와 추방위기, 체포와 감옥 구금, 살인의 위기, 선교지 원주민들과의 심각한 의견충돌, 동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짐과 단절, 지나친 사역의 중압감, 영적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 포위됨(왕하 19:1~4)등으로 인해 영적 고통과 통증으로 한없이 시달린다.

사단은 선교사가 영과 육체적으로 낙망시키고 혼절을 시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이상 갈 길(Way)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왕하 19:7). 그러므로 선교사의 모든

종류의 증세들은 사역자로써 추진해야 할 사역을 중단시키고 패배시켜 선교지에서 퇴각시켜 버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다.

3 그러면 영적 환자로 돌아온 선교사들을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

선교사 본인은 1991년 몽골에 들어가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본 이후에 1995년에 심각한 낙심과 우울증 그리고 패배의식, 놀림, 어찌할바를 모르는 고통과 절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아무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는 경지, 가족도 선교 파송단체들이나 선교회도 후원교회도 큰 도움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선교관에 앓아서 하염없이 흘러 네리던 눈물, 고향에 돌아가서 끝없이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 병원에서 처방해준 수십개의 알약 캡슐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던 때가 생각이 난다.

왕상 19:5~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에 의해 치료받았음을 규명해 준다. 선교사들의 영적 탈진과 아픔들은 영적인 상처들이다. 낙심, 통증, 배신... 선교지에서 머리와 마음에 입은 부상들은 영적으로 치료된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증세와 낙심증세로 자살의 경지에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졌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탈진해 버린 엘리야 치료의 1차적 사역을 천사를 통해 행하셨다. 천사는 육신적 영적 넉다운되어 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졌고, 속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고 마시게 했다. 광야에서 지친 육체를 위해 2차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을 통해서 육체를 치료했다. 3차는 능력의 하나님, 조용학대 다가 오신 하나님에 직접하셨다.

왕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탈진과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상황속에서 회복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첫째는 광야로의 도망(Escape)과 기도(Pray)다. 이것은

선교사가 이런 증세가 오면 빨리 사역지에서 후퇴하여 후방인 한국, 미국, 상황이 안정된 다른 나라의 한 선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나와야 한다. 나는 지난 23년동안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수많은 탈진과 영적 어려움 속에서 한국, 홍콩, 중국, 미국으로 나와 위기들을 넘기고 재충전해 다시 들어가 사역을 수행했다. 어떤 때는 몽골의 수도에서 외국으로 나오지 않고 지방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부상당한 사역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 도망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한 치료받고 더 잘 싸우기 위한 상황 모면적인 도망이다. 도망과 이어서 그속에서 드린 기도의 시간(Prayer time)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치료하기 시작했다.

둘째는 잠(Sleeping)을 자야 한다. 선교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신이 아니다. 신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한다. 육체의 나약함은 때로는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육체의 지나친 소진은 영적 소진을 동반하기도 한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치루면서 엄청난 양의 육체적 소진도 함께 있었다. 육체를 일으키는 최고의 보약중 하나는 잠이다. 그는 천사의 두 번의 어루만짐속에서 깊은 잠을 잤다. 먹고 자고 먹고 잤다. 이것이 하나의 치료 방법이다. 나의 경우는 새벽기도도 안가고, 잠만 잤다. 며칠간 뚝 자고 나면 정신이 돌아오고, 다른 세계에 갔다가 돌아온 기분이든다. 거반죽었다가 다시 회생하는 기분이 들었다. 선교사가 탈진해서 돌아오면 조용하게 해 주고 깊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이곳 저곳 끌고 다니게 하지 말라. 쉼이 보약이다. 선교사에게는 휴식이 새 에너지다.

예수님도 두로 지방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막7:44) 어떤 경우는 제자들에게 “여기서 잠깐 쉬어라”라고 권면하셨다. 그분은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 중간 수면을 취하셨다. 때로는 여행중에 배에서 잠을 자기고 했었다. 선교사는 잠을 통해 육체를 조절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선교사는 안식년이나

탈진중 휴식기간에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이끌려 여기 저기 다니지 말고 치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하여 쉬어 주어야 한다.

셋째는 주의 천사의 어루만짐(Touched)이다.

영적 부상은 영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The Angeles of the Lord)가 와서 터치(touch)해 주었다. 얼마 후에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두 번째 터치(touch)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일도 알려 주었다(왕상 19:5,7). 엘리야는 영적 큰 절망과 낙심과 사역 욕구 부진현상과 영적 침체에서 천사의 어루만짐 사역(touched ministry)을 통해 부분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다. 그는 영적 타격을 받음, 두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생할 수 있었다(시23:4).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힘들게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다. 그러나 후방의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낙망하고 패망해 돌아온 선교사들을 다시 어루만져 달라(Touch)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온 힘을 다해 선교사를 어루만져 주실 것을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천사가 올 것이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Holy spirit)을 보내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실제로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섞은듯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내게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일어서라.... 그가 내게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단 10:8~11)라고 증명했다.

실제로 선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은 영적 문제

에서 가장 최종적인 해결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성령 사역이나 천사의 사역으로 승리하고 모든 병상에서 넉넉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4 하나님의 음성(Word and Speaking of the Lord)이다.

다니엘의 경우도 “우バス 순금 때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서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단10:5~7, 9~12).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I heard him speaking, and as I listened to him,

단 10:9) 다니엘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없는 썩은듯한 영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엘리야의 경우도 두 번의 천사의 음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왕상 19:5,7,9,12~18).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The word of the Lord 王상 19:9)

을 들었던 것처럼 탈진할 선교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1996년 두 번째 심각한 탈진을 갖고

한국에 나왔다가 1달후에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속에

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을 연속적으로 1~13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영육이 더욱 회복되었다. 그 이후 나의 선교 철학이 바뀌고 내가 현지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지친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충분했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난 17년동안(1996년이후) 나는 선교

지에서 다른 종류의 많은 탈진들과 충격들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일어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선교지에서 탈진해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이여! 우리 함께 사람의 말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발된 선교사이고, 하나님에 의해 사역하고, 우리 영혼과 육체의 피폐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치료하실 것을 확신하자!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며, 우리를 치료하실 의사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승리케 하실 선교의 사령관이시다! 우리는 다시 말씀(word)이 육신(fresh)이 되어 선교지 추수밭(mission field)에 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후방 선교사들은 선교사에 성경 한 권을 선교관에 넣어주어 선물하면 어떨까? 2007년 나의 선교관이었던 작은 삼일교회의 한 권의 성경 선물은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충전하는데 충분한 성령의 무기가 되었다.

를 날라온 까마귀처럼, 줄도해 버린 것 같았던 엘리야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어루만지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격려했던 천사처럼 쓰임받도록 하자! 그래서 영광의 선교의 주인이 오실 때 받을 상이 있도록 하라!

2014. 9. 19

영적인 추락을 경험한 엘리야는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달음질로 맹진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광야를 통과하며 달렸다. 다메센에 찾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였다.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런후 자기 고향에 돌아가 미래 후계자겸 제자가 되어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될 엘리사에게 기름부어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후에 자기 같은 제자 양성과 신학교 영적 지도자 사역을 했다.

인생이 끝나가는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끝나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방문했던 사역지의 열매들을 열왕기하 2장에서 찾을 수 있다. 벤엘에 세운 신학교와 제자들(2:2), 여리고에 세워진 신학교와 제자들(2:4), 요단에 세워진 50명의 제자들과 신학교(2:5,6)를 본다.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많은 목회자들을 남기고 승리하고 영광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에 승천했다.

우리 선교사들도 엘리야처럼 낙망과 포기와 굴욕과 병적 증세에서 치료받고 엘리야처럼 남은 대업을 완수하도록 하자. 후방 선교사들이 선교 후원자들도 치료받아야 할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돋고 헌신하여 선교사의 아픔을 돌보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라. 그들의 아픔에 소독약을 부으라. 봉대를 쳐매 주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자. 선교 후원자들은 수넴 여인처럼, 사르밧 과부터럼, 기진한 사역자에게 떡과 고기

선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후방지원에 대한 연구

정태화 선교사

Universal Care 고문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선교사



서론

1) 연구배경

나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14년 동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방 개척 사역을 하였는데 7년 차가 되었을 때 탈진을 경험했고 전투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버티기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라는 20만의 도시에 한국 선교사 7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필자가 있는 동안 세 명의 선교사가 죽었고 5명의 후배 선교사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 갔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찾아 오는 탈진과 약함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적지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전투력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후방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한국선교의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그 해결책은 선교사 멤버케어인데 멤버케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한 부분은 선교사가 본국으로 들어 왔을 때 치료와 재충전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본국 후원단체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다. 필자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외로움과 본국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14년 선교를 하면서 그 부족을 채울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한 것이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다.

아직 한국교회와 파송하는 단체들이 보내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선교사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현지의 복지상황과 선교사들이 선교현지에서 받고 싶어 하는 후방지원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2만 5천의 한인 선교사를 돋고 살리는 전문 후원단체를 설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선교사들의 건강한 선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후방지원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함으로써 선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후방지원 사역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리서치를 통해 먼저 후방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고 싶고, 다음은 후방 지원 사역을 시작 했을 때 먼저 시작해야 할 급하고 중요한 후방 지원이 무엇인지 그 순위를 알기 위함이다.

연구설계

1) 표본추출계획

필자가 택한 표집 방법은 군집 추출법이다. 그 이유는 패서디나 (Pasadena)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의 대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패서디나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일반적인 선교사인가 아니면 특별한 선교사인가를 고민해 보았다. 필자가 원하는 정보

는 선교사를 통해 선교현지의 복지수준을 알고 한국이나 후원 단체로부터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후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므로 선교현장에서 최소 5년 이상 된 선교사라면 누구나 대답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안식년 중인 선교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보편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을 느끼는 선교사는 30명중 11명이었다. 식생활부분에 서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선교사는 불편함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선교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조사에서 33%는 조금 느낀다고 조사되었고 30%는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선교지마다 선교사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 통합연구 방법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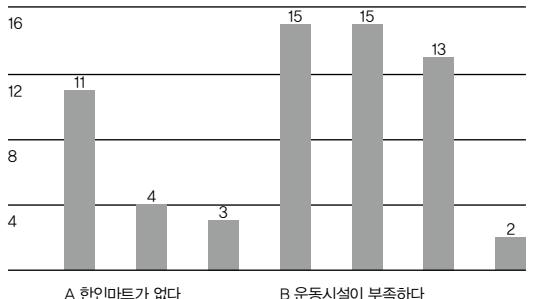
필자는 통합연구 방법으로 순차적 설명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연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확보하고 설문 조사를 하면서 후방지원을 받아 본 선교사가 있다면 인터뷰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후방지원 사례들과 그 성과들을 조사해서 후방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3) 연구의 한계

필자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패서디나 지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Fuller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총 30명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12개 나라 14개 도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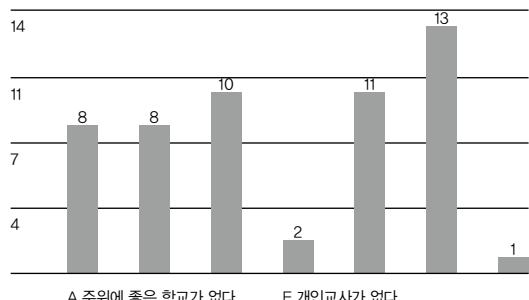
조사 결과 분석

1) 선교지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불편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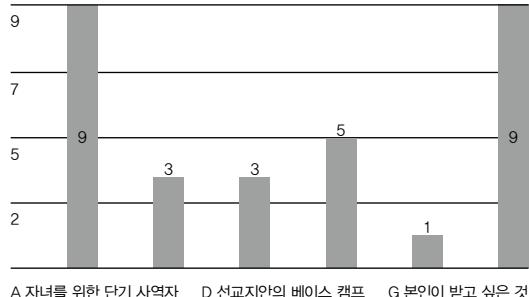


30명 중 절반이 선교 현지의 의료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친구의 부족을 선택했다. 한인 마트가 없어 불편함

2) 자녀 교육에 대한 불편함 조사



3) 본국으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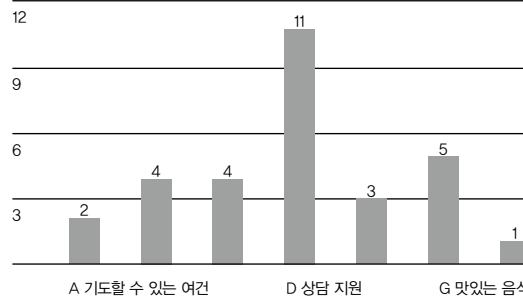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본국으로부터 복지 향상을 위해 받고 싶은 지원을 알아보기 위해 위 항목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자녀를 위한 단기 사역자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지 환경이 좋고 복지 수준이 높은 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선교지 환경이 열악 한 곳은 필요 물품 지원을 선택했다. 통제가 심한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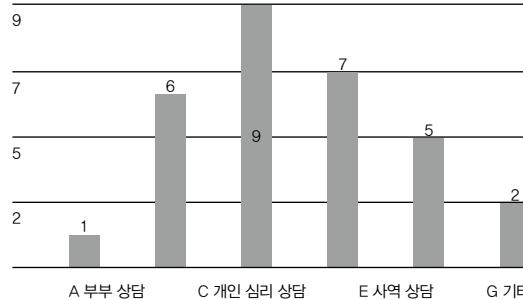
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베이스 캠프지원을 원했다. 인터뷰 결과 방콕의 선교사는 오히려 단기팀과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라고 한다.

4) 베이스 캠프를 통해 받고 싶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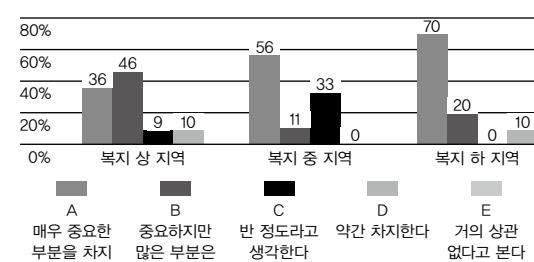
베이스 캠프를 통해 받고 싶은 지원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했다. 놀랍게도 상담지원이 월등하게 높게 조사되었다. 쉼과 재충전에 있어서 상담을 통한 치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5) 선교지에서 받고 싶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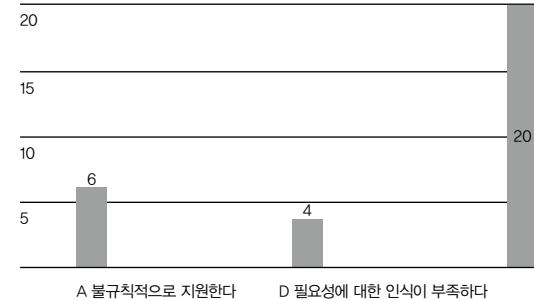
선교사들이 받고 싶은 하는 상담은 개인 심리상담, 관계 갈등상담, 자녀문제 상담, 사역상담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인 치료 상담도 필요하지만 자녀문제와 사역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코치도 필요함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각분야 전문 상담 선교사가 베이스 캠프를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하겠다.

6) 후방지원이 선교사 탈락 방지에 미칠 영향 조사



“복지 하 지역”的 선교사 70%는 후방지원이 선교사 탈락 방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고 “복지 상 지역”的 선교사 중 36%만 후방지원이 선교사 탈락 방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선교사를 위한 후방지원의 영향력이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후방지원의 대상을 선정할 때 선교지의 환경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7) 복지 향상을 위한 후방지원의 문제점



현재 본국에서 행하고 있는 후방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66%가 체크를 했고 조사 대상 가운데 정기적으로 후방지원을 받은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결론

선교사들은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 현지의 복지 수준도 다양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받고 싶은 지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복지 환경이 어려울수록 후방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후방

지원을 할 때에는 선교지의 복지 환경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선교사 자녀를 위해 전문 사역자”를 지원 받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선교사 복지를 위해 후방 지원 사역을 개발 할 때 최우선되어야 할 사역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베이스 캠프를 통한 상담사역을 받기를 원했는데 케냐의 김순태 선교사는 자신이 속한 선교 단체는 카운셀러 센터를 두고 있는데 아프리카 내에 있는 소속 선교사만을 위해 5명의 전문 상담가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인 상담가가 생겨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담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선교사는 전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 가운데 2%도 안된다고 한다. 2%는 한인이지만 미국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 교회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 선교지의 영혼들에 대한 직접적인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선교사를 돋고 선교사를 살리는 협력사역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교회와 교단 파송을 받은 한국 선교사는 베이스 캠프와 상담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연해주 지역에 약 100명의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파송 교회와 교단이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교회 선교에서 선교사 멤버케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러한 멤버 케어를 위해서는 선교사를 살려야 한다는 비전을 가진 전문선교단체가 필요하다. 만약 100명의 선교사를 위해 선교지에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상담 치료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한다면 250개의 캠프와 250명의 전문인 상담선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한인 2만5천 선교사를 케어 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한 사역은 너무나 광범위 하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100명의 선교사를 돋는 케어 시스템을 만들어 좋은 모델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며 그 다음으로는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요성을 한국교회에 알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선교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

모든 한인 선교사가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돋고 협력하는 보내는 선교의 운동이 한국땅에서 일어나기를 꿈꾼다.

선교사 멤버케어의 당위성

한국의 선교운동은 지난 30년간 수적인 면이나 대중적 인식 모두에서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 자체가 미전도 국가였던 때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놀라운 자기희생의 본보기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외국인들에 의해 불 붙은 복음의 열정을 이제 한국인들이 선교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한국 선교사들의 열성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파송 단체들은 양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숨에 해치우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영적 거인이 되라!”는 문구는 선교사들을 도전하는데 사용되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선교사 가정 모두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갈 만큼 영적으로 퉁튼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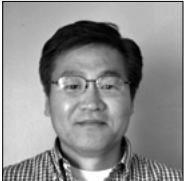
선교사들에게 희생적인 생활방식과 열성만을 강조하고 장기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는 멤버케어(member care) 시스템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멤버케어를 위한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의 당위성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1 설문조사

한국 선교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선교단체가 제공하는 멤버케어에 대해 알고 있는가? 멤버케어 서비스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또는 장벽이 있는가? 현재 제공되는 멤버케어가 적절한가? 필자는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 2012년에 안식년 중인 한국 선교사들로

조나단 강 박사

교육학 박사, 임상심리학 박사,
미국 임상심리학자 면허, 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 Partners
대표, 한인가정상담소 임상 디렉터,
멤버케어 provider



이루어진 작은 표본으로 짧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참가들은 14개의 선교단체를 대표했다. 4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은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태도, 인식, 장벽, 그리고 현황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24명의 여자 선교사와 22명의 남자 선교사로 이루어진 46명의 선교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부부 선교사였다. 유효한 총 39개의 데이터세트(남자 19명, 여자 20명) 중 일곱 개의 설문자는 미완성으로 제출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35세부터 58세까지의 나이로 남자 평균나이는 46세, 여자 평균나이는 43세였다. 선교지 파송 당시 나이는 평균 35세였고, 선교지 사역 연수는 평균 10년으로 최단 3년, 최장 21년이었다.

2 멤버케어의 인식과 경험

응답자가 멤버케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개의 질문이 주어졌다. 70% 이상이 멤버케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6%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대로 멤버케어 담당자가 있는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파송받은 응답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 응답자들은 실제로 멤버케어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도 했다. 사전 현지오리엔테이션(pre-field orientation)에서 멤버케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선교사 가족들은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멤버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전에 멤버케어에 대해 알고 있던 선교사들은 카운슬링 서비스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데 더욱 긍정적이었다.

디브리핑(debriefing)은 가장 흔한 멤버케어 형태인데,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디브리핑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응답자들 중 39%는 이미 디브리핑 경험에 있다고 대답했다. 다른 형태의 멤버케어 서비스를 받은 선교사들에 비해 디브리핑 서비스를 받은 선교사들이 거의 2.5배 많았다. 응답자들의 67%에 달하는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파송한 선교단체나 교회의 멤버케어 사역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대답한 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다. 14% 미만만이 전문적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다.

파송 전에 선교단체에서 정신적 문제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뿐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기 전에 정신적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와, 선교사들의 75%가 자신의 파송단체가 멤버케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과 일치한다.

한국 선교 활동의 대부분 (문상철의 지적에 의하면 91%)은 전통적 영혼구원사역에 맞추어져 있으며, 나머지 9%는 인도주의적 지원, 의료 지원,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멤버케어를 포함 (아주 적은 부분)한 기타 사역이다.¹ 멤버케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소모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3 선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요인들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찾을 마음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절반을 약간 밑도는 정도였다. 1/3정도는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 찾는 장소나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2/3는 사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내려하지 않았다.

이 설문의 결과는 문헌과 일치했다. 정신적 질병의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증상이 심각한데도 전문적 도움을 거부하곤 한다. 낙인 찍히는데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의학에 의지하거나 갑비싼 전통 동양의학에 매달리게 되어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²

1) 문화적 요인

아시아인들은 문화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친구, 가족, 친척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 감정적인 문제나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요인을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우울증을 심리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육체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본다.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신체적 건강 문제로만 국한해 이야기 하고, 부모님, 자녀들, 직장 등 문제를 우선시 한다.

응답자들의 1/3만이 비공식적 지원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개인들과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격려를 받는다고 했다. 이런 낮은 비율은 한국 선교사들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응답자의 반 정도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심리학적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8%에 불과했다. 한국 선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내면화하는 강한 감정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대처 방법이 덜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⁵

2) 수치감, 그리고 낙인

아시아 사회에서는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이 문제를 악화시킨다. 육체적 질병과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해되고 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는 그와는 다른 문제이고, 따돌림 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신체증상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⁶

“체면”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한국인들이 전문적 정신상담을 받는 것을 막고 있다. 한국에서는 체면이 사회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며 평판을 헤칠만한 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개인적 문제가 생기면 힘들기 마련인데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힘들게 한다.⁷ 사회적 오명의 위험은 현실이다. 대

부분의 아시아인들에게 정신과를 찾는 것은 가족에게 불미스러운 일이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가족들은 자식들의 결혼 문제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4 지원처

기독교인들 중에는 상담이 세속적,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최근에는 기독교인들도 심리학 지향적 설교, 내적 치유, 자기 탐구, 그리고 정신적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에 대처하는 훈련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 지난간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목회상담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5%만이 심리상담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었고 대부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심리상담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는 선교사들은 단체에서의 직위나 체면 때문에, 또한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의지 박약과 사역을 잘 감당할 만한 자신감 부족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여 전문적 도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설문 참여자의 67%는 멤버케어를 받는 것보다는 개인적 영성훈련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것에 주목하자. 설문 참여자의 96%는 개인적 영적 성장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고 있다고 답했고, 59%만이 자기 돌봄 (self-care) 노력이 적절했고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관리보다는 영적 활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설문 참여자의 56%만이 정기적인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다. 적절한 자기관리는 실제로 건강한 멤버케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자신관리가 잘 안 되면 열정적 사역자들은 소진상태가 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약해지거나 가족과 동료 관계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

5 간과되기 쉬운 개인 휴식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지 경험이 3년 미만인 선교사들은 영적 성장 증진에 있어 모든 다른 그룹들보다 훨씬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사역 7~9년차 그룹이 가장 점수가 나빴다. 예정된 개인 휴식을 취하는 문제에서도 역시, 전자 그룹이 최고의 점수를, 후자 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영성은 훌륭로 개발되거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든 사역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것은 선교사의 삶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선교사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적당한 휴식 없다면 자신들의 영적 행복과 정신건강을 담보로 일하는 것이다. 상급자들이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것을 억지로라도 권하지 않는다면 탈진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

6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멤버케어

한국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행복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 밖의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곤 한다. 선교사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응답자의 68%가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다고 믿고 70% 정도는 육아와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가족과 사역이 서로 직접적 경쟁관계가 되곤 하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가족을 포함한 어떤 다른 의무에 앞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설문 참여자의 45%만이 가정 생활과 사역에 균형을 잡고 있다고 대답했다.

선교사들의 89%가 소속 단체로부터 선교사역과 문화 적응에 대한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고 대답한 것은 안심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후속 설문조사에서는 가족 전체가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경우는 43%라는 당황스러울 만큼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소속 단체에서 적절한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은 30% 뿐이었다. 선교사들과의 후속 인터뷰를 통해 선교사 가정, 특히 자녀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주시는 회복력과 부모의 도움 외에는 속수무책이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한다. 자녀들의 성공은 부모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를 재차 확인시켜주고 자녀들의 학력과 직업성취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 선교사들의 자녀교육 문제는 선교사 선발, 선교지 배정, 선교사역에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임자들과는 달리, 요즘의 선교사 지망생들은 자녀들의 학문적 성공과 안전 가능성에 대해 주저함 없이 질문을 던진다.⁸ 적절한 교육 기회의 부족은 일부 선교사들에게 문제가 되고,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해결책으로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러기 현상은 자녀교육을 위해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영어권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는 혼자 혹은 남은 가족들과 한국에 남아 돈을 벌어 기러기 자녀들을 부양한다.⁹ 이런 현상은 한국 선교사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선교단체나 동료 선교사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기에 비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

“탁란” (다른 새 둉우리에 자신의 알을 품게 하는 것) 현상 역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현상으로, 서구 선교사 기숙학교의 혜택을 이용하는 수많은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표현하는 말이다. 해외 한국선교사들의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한국 선교사 자녀(KMKs)의 수 또한 지난 20년간 상당히 많아졌다.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수가 그 외의 나라 학생 전체학생 수를 넘어서고 있다. 원래 국제학교와 선교사학교는 서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서구 선교사자녀의 수가 줄었지만 서구 선교단체와 관련 단체들이 아직도 학교를 운영하며 재정과 교사 및 상담 직원을 보내고 있다. 한국 선교사자녀들은 학교의 혜택을 입고 있지만 정작 한국 선교단체들은 이들 학교들을 넉넉히 후원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로 교사와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서구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자

녀(KMKs)들을 탁란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의식 있는 몇몇 한국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¹¹ KMKs 사역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멤버케어는 현재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7 결론

참여자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후원과 멤버케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선교사들은 수치심이라는 문화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아 약해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멤버케어 시스템에 관한 그들의 열린 마음과 갈망은 아주 긍정적이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도 있다. 데이터가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가족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선교사들은 자기/상호 돌봄, 후원자/전문가의 돌봄 등 멤버케어 전반에 대한 필요를 분명하게 밝혔다.¹² 그들은 영성 시간과 정기 휴식도 필요로 했지만 사역 시간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문케어시스템은 잘 사용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사 감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선교사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멤버케어 사역의 선구자인 이태웅은 “지금까지는 빈약한 케어를 받으면서도 선교사들은 가까스로 살 아남았다… 그러나 미래 선교사 세대가 합리적인 케어 없이 장기전임선교사로 계속 일하며 잘 지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경고한다.¹³ 다행히도 한국의 멤버케어 관련 사역이 급성장 하는 중이다. 선교사를 위한 단기 주택을 공급하는 50개 이상의 무료지원 사역과 선교사 커뮤니티의 건강진단과 수술까지도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있다. 또한 몇몇 정신과 병원과 의사/전문 상담가들이 심리테스트와 간단한 정신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자들을 통해 인

터뷰를 해 본 결과 실질적인 멤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선교단체는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도적인 멤버케어를 제공하는 선교 문화가 긴급하게 요구된다.

선교사의 멤버케어에 대한

황필남 선교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
International advisor



이론과 실제

1990년 이전까지 한국 선교는 약 400명 안팎에 선교사를 선교 현지에 내 보냈으나 1991~2014년에는 25,000명 선교사 시대가 되었다. 이런 장족의 선교의 숫적 발전 뜻지 않게 이제는 “선교사 멤버 케어”라는 용어와 위기 선교사 즉각 치료하자는 슬로건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분명 한국 선교는 발전하고 있다. 88~90년경에 선교 훈련을 받고 91년 선교사로 출발한 나는 이런 용어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국 선교는 분명히 숫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12세기 징기스칸은 전쟁터에 나갔더니 적군이 쓴 화살을 목에 맞고 쓰러진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아군이 그의 목에 있던 화살을 제거해 주고, 소독과 돌봄 그리고 그가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던 아이렉(몽골인의 몸에 배어 있던 마유주)을 적군의 진지에 몰래 구해와 마시우고 잠을 재운 후에 죽어가던 그는 다시 일어나 대몽골 제국을 건설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영적 전쟁터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쓰러져 귀국한 선교사들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재파송함으로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선교의 승리 시대를 열어 보자!

1. 멤버케어와 위기 디브리핑에 대한 용어 정의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선교 용어인 멤버 케어란 무엇이며 위기 디브리핑이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자. 그런 다음 이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보자.

1) 멤버 케어란 무엇인가?(What is the Member Care?) 치명적 위기 등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적기에 치료 받

지 못하면 정신적 충격, 긴장, 두려움, 불안감 등이 극심해져 사역 효율성이 감소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선교사의 위치에서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 멤버케어란 바로 선교팀의 멤버인 선교사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한국교회의 충분한 돌봄 제공을 통해 회복하는 것을 멤버 케어라고 한다. 멤버 케어는 본래 우리보다 선교가 발전한 서양식 선교 용어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교사 치료”, 혹은 “선교사 돌봄”이라 하겠다.

2) 위기 디브리핑이란 무엇인가? (CID, Critical Incident Debriefing)

교통사고, 강도, 납치, 전쟁 등 치명적인 위기를 겪은 사람에게는 보다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위기 디브리핑(CID, Critical Incident Debriefing)이 필요하다. 선교사는 타문화권에서 위험과 충격을 받는 위기 사건을 종종 경험한다. 위기 경험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선교사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회상시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디브리핑(CID)이라 한다. 그리고 위기 디브리핑은 직접 위기를 경험한 선교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충격 받은 주변 사람들(가족, 다른 선교사, 현지인 동역자)에게도 시행되어야 한다.

2. 실제로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위기들과 실화들은 무엇인가?

선교사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문화권(Cross-culture)에서 사역하다보니 외적 그리고 내적인 여러 가지 위기

인용

1. Steve Sang-Cheol Moon,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6, no. 2 (April 2012): 84.
2. J. Shin, “Help-Seeking Behaviors by Korean Immigrants for Their Depression” (Ph.D. diss., Columbia Univ., 1999),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0, 05B.
3. Jennifer Grossman and B. Liang, “Discrimination Distress amo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2008): 1–11; P. E. Bebbington et al., “Unequal Access and Unmet Need: Neurotic Disorders and the Use of Primary Care Services,” Psychological Medicine 30 (2000): 1359–67.
4. Depressed Korean-Americans are more inclined to rely on self-help techniques and alternative health care such as herbal medicines, acupuncture, or religious/prayer healings; their counterparts who are not depressed are more open to relying on professional counseling. See Kyung Lee, “Help-Seeking Behaviors by Korean Americans with Depression or Anxiety” (Ph.D. diss., Univ. of Illinois at Chicago, 2010),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AAT 3431369), www.proquest.com.
5. S. Tata and F. Leong,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994): 280–87.
6. Y. Kawanishi, “Somatization of Asians: An Artifact of Western Medicalization,”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29 (1992): 5–36.
7. M. Root, “Guidelines for Facilitating Therapy with Asian American Clients,” Psychotherapy 22 (1985): 349–56.
8. K. Baker, “Boomers, Busters, and Missions: Things Are Different Now,”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33 (1997): 70–77.
9. In Hyo Cho, interview by author, Los Angeles, January 30, 2013.
10. Duk Soon Im, “MKs and the Future of Korean Missions,” my translation, http://kcm.kr/dic_view.php?nid=41020.
11. Ibid.
12. Kelly O'Donnell, ed.,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Pasadena, Calif.: William Carey Library, 2002), 15–19.
13. I have translated David Tae Woong Lee's statement from the outline (cover page missing) of a conference held in Korea.

들이 성장한 한국 국내에서 보다 훨씬 쉽게 오는 경향이 있다.

1) 선교 외적인 위기들: 선교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탈진, 추방, 가족의 문제등으로 선교사가 사역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 선교사는 이런 요소들로 타인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원주민들과의 교제 자체도 어려워지는등 실제적인 선교의 “외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영적 탈진에는 영적인 고갈의 문제가 있고, 신체적 문제 가운데는 심각한 탈진과 우울증등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된다. 어떤 경우는 문화와 상황이 다른 종족에서 자라가야 하는 자녀들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받는 충격에서 오는 자녀들의 탈선 문제도 있다.

2) 선교사 내면의 위기들: 외적인 위기들은 점차 선교사 자신에게 중도 하차문제, 갑작스런 퇴임 문제후에 오는 충격으로 이어진다. 이런 충격들은 선교사에게 좌절감, 상실감, 낙심, 감정의 균열, 우울증등 다양한 위기 상황들이 합병증을 유발해서 선교사의 “내면의 위기”를 초래 한다. 내적 위기가 오면 선교 사역은 진전이 없고 선교사로써 존재감도 상실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3) 선교사의 내면의 위기 맞은 실화

한국 전쟁이후 1959년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미국인 래시 듈(Richard Dick) 선교사는 한국에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1975년 퇴임하고 미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그는 곧 내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유혹을 받아 다른 남편과 재혼해 갔고 어린 두 딸은 걸인(homeless)이 되어 어떤 깅통집에서 방치되어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퇴임하고 모국에 돌아온 귀환 선교사의 충격은 결국 알콜 중독자가 되어 버리고 만다. 선교지의 지침과 역 문화 충격과 고국에서의 가정 문제의 충격은 선교사를 극심한 영적 육체적 피폐 상태로 몰고 갔고, 이것을 치료받지 못한 미국인 선교사는 결국

내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내가 2000년 아틀란타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중풍에 떨고 있었다.

4) 선교사 위기들에 대한 돌봄(케어)
만일 어느 선교사에게 치명적 위기가 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 그의 불필요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위기 디브리핑(CID)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 위기 디브리핑(CID)이 잘 되면 사고 당사자는 정서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고 선교팀(Mission Team)은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만일 어떤 선교사의 위기를 인식했으면, 우왕 좌왕하지 말고, 즉각적인 돌봄 조치가 필요하다.

5) 한국 선교사 위기 관리와 돌봄(케어)

한국도 이제는 신앙과 의료수준, 지식과 경제의 향상으로 디브리핑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한국의 선교 재산이다. 디브리핑 역역이 잘 세워지길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각종 의사, 심리 치료 전문가, 선교 단체 리더십 등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선교사 위기 디브리핑(CID) 사역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역이 아니다. 국가 위기관리재단과 같이 선교사 위기관리재단과 같은 종

합적인 선교사 연합 위기 디브리핑(CID) 사역팀을 조직 운영해야 한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선교사 위기를 돌보는 치유 사역이 여기 저기서 실행되고 있어 감사하다. 최근들어 한국에는 신실한 기독 의사들이 개인적 혹은 단체적으로 선교사 돌봄을 시도하고 있다. 유니버설 케어도 그들중에 하나다. 이제는 네크워을 구성하여 국제법 전공자, 의사들, 심리 치료자, 선교단체, 그리고 영적 치료 가능한 사역자들까지 연합하여 한국적 위기 디브리핑 사역팀(CID Ministry Team)을 만들 때 가 되었다.

3.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위기들의 종류들

1) 비자 문제와 추방의 위기

우르벡 타쉬켄트에서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행했던 김영제 선교사 가정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 놓고도 추방을 당했다. 먼저는 남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한국으로 선교지에서 퇴각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했다. 돌아온 한국에서는 대책이 없고,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지를 몰라 중국과 다른 지역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러시아인을 위한 신학교와 한국 교회를 이양받아 사역하며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받으며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근래들어 러시아, 중국, 몽골 선교사들은 밤마다 추방당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도 돌봄이 필요하다.

(1) 추방 요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종교법, 비자법, 정치 및 사회문화적 요인, 단기 봉사팀 활동으로 인한 피해로 추방이 된다. 선교사들과 후방교회들은 선교사 추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선교사 추방에 대응으로써 선교지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법도 배우고 현지 변호사들도 친분을 만들고, 정치계 원로들도 사귀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방빌미를 주지 않고 자신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2) 추방에 대비한 선교사 자기 관리

추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가능하면 건물을 짓는다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성 선교사역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중국에 파송된 K 선교사는 수십만불의 선교 비전 센터를 건립한 후에 추방 당했다.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자금이 들어오자 중국 정부는 추방의 기미도 없었다. 막상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 갑자기 들이 닥쳐 다른 이유를 붙여 추방 했다. 몽골의 P선교사는 외무부에 있는 몽골인 공

무원이 추방의 의사를 학교 동창을 통해 알려오자 재빨리 신분용 비자를 종교 비자로 바꾸었다. 4일만 늦었어도 추방이 되었을 것이다. 몽골의 Y선교사는 현지인 선교 동역자의 관계가 어려워지자 현지인의 고발로 추방을 당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선교사는 자국이 아닌 모국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한다.

(3) 선교사 추방 원인 분석

김호동 선교사는 중국에서의 선교사 추방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종교법 2) 비자법 3) 정치적 문제 때문에 4) 사회 체제가 불안한 가운데 정치 문제와 교회가 연관 때문에 4) 현지인 및 현지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문제들 때문에 5) 목회 등에서 (선교사와 현지인이) 경쟁 관계가 되면서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6) 선교사들의 보안 준수 미비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교 문서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곳에 저장하라고 당부한다.

여하튼 선교지에서 추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추방된 선교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 본부와 파송 교회도 충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선교사 멤버케어가 필요하다.

(4) 추방의 다양한 유형들

1) 어떤 지역에서는 체포후에 경고 또는 벌금을 물게하고 풀어 주거나 2) 감금후에 즉각적인 추방을 하는 경우 있다. 3) 한국에서 선교 국가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을 안해 줌으로 뜯 들어오게 하는 경우 4) 현지에서 비자 연장 거부 5) 현지 사역지에서 종교비자 재발급 중지 6) 노골적으로 NGO등 기관내에 연기를 해 주지 않음으로 선교사 비자 재발급에 문제를 만 들어 외무부 노동부 법부무등으로 이리 저리 보내 피곤케하고 기간이 지났다는 핑계로 안주는 경우등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다양한 형태의 추방의 사유들인 이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정부가 추방 대상자들을 조사

연구하여 명단을 만들어 선교지 정부의 입맛대로 한 명씩 추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교사의 추방 선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선교지에 집, 선교 기관(NGO등), 자동차, 선교장비, 선교 은행 구좌등, 선교 프로젝트 사역을 모두 하루 아침에 놓고 나오게 된다. 심각한 경우는 24~48시간안에 추방된 경우도 있다.

(5) 추방된 선교사의 멤버케어 대책

가. 선교사 파송 본부에서는 추방 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선교사들을 위해 국내 거처를 신속히 마련하고 상담과 휴식을 제공하며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가 추방당했다고 선교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은 선교사가 사역지를 전략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선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교지의 변화에 대해 늘 여유롭게 준비하고 후원 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추방된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인 경우 국내 중국 유학생 사역,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화교 교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적극적인 재배치 교육 등을 통해 후속적 사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선교사들의 추방에 대한 예견과 지혜: 선교사는 추방 이전에 안식년이나 휴가 세미나 등을 핑계로 미리 같은 선교권(예를 들면, 화교 선교권, 러시아어 선교권, 영어 선교권, 몽골족 선교권등)을 미리 정탐하고 관계를 잘 맺어 놓았다가 추방을 당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그런 곳에 재파송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마. 선교 단체, 후원교회, 선교사 자신은 선교 상황을 빨리 보고 대책을 세워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선교를 해 나가야 한다. 그 방법은 1) 선교사가 바울처럼 체포와 추방되기 이전에 스스로 선교지를 이동하는 것이다. 2) 안식년을 앞당겨서 조기 안식년을 하면서 풀러신학교 아시아 연합 신학교 등에서 재충전 하는 것이다. 2013년 나는 풀러신학교에서 중국에서 추방

당하기 직전 도망쳐 나와 안식년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현명한 한 한국인 중국 선교사를 만난적이 있다. 3) 현지 정부의 경고조치를 받은 선교사는 이동대책이나 비자 연장 가능 종목으로 빨리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사역으로 변신해야 한다. 나의 경우 우 추방 3~4일 직전에 18년동안 유지해 오던 NGO 비자에서 종교(R)비자로 변경하여 몇 년을 더 버틸 수가 있었다. 4) 그래도 힘들면 동일 선교권으로 선교지를 바꾸라. 나는 2011년 20년간 사역해 오던 몽골 중심의 몽골인 선교에서 몽골인들이 7,000명이 밀집해 있는 미국 와싱톤으로 선교지를 바꾸었고, 미주 7개 지역을 돌며 순회 선교도 하고, 유럽의 6개국에서 순회 선교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에는 2~3개월동안 몽골을 돌면서 20여개 교회들을 돌보며, 단기 비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몽골인 선교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 나의 몽골인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와싱톤에서는 몽골인 교회(130명 출석)와 신학교(95~100명)를 만들어 활기차게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는 가능하면 멤버 케어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한다. 후방 성도들은 위험속에 선교사들을 위해 멤버 케어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바. 추방된 선교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들 추방된 선교사는 생각을 바꾸어 스스로 넘어짐과 낙심의 유혹에서 건짐 받아야 한다. 첫째, 추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바울 선교사의 추방을 통하여 다음 선교지로 가는 비전을 주셨다. 추방은 다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병일선교사는 러시아 선교사나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고, 윤성창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나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고, 김영제 선교사는 러시아 선교사나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다. 추방이 결코 아픔만이 아니라 패러다임 쉬프트(인식의 전환)하면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선교사 추방을 통해 선교사를 성령으로 재배치하시곤 하신다. 윤성창 선교사는 체포와 감

옥에 구금되었다. 그리고 2차 체포와 추방의 위기속에 몽골로 피신하여 제2의 몽골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라마불교의 사찰을 매입하여 교회를 세웠다. 셋째, 추방도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다음 사역에 임해야 한다. 선교사의 추방 문제도 결국에는 정부나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뤄지고 있다. 하나님은 일부 선교사들에게 편 박을 허락하셨다(계2:10). 하나님은 편 박 중에도 면류관과 상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다(마태 5:10~12). 아프고 힘들지만 치료받으며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을 상을 기대하고 그분을 찬양하자.

2) 선교지의 사건 사고들

선교사나 파송한 교회, 단체, 가족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갑작스런 선교사의 사건과 문제에 곤혹을 치룬다. 간단한 경우는 다치거나 신체적 부상정도이지만 심한 경우는 파송한 선교사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에 참가한 한 여성은 단기 선교후 말라리아 병에 걸려 사망했다. 인도에 단기 선교 갔던 한 독신 여성은 버스에서 추락하여 세상을 떠났고 불신자 가족들은 장례식에서 선교단체 사무총장의 역할을 잡고 흔들어댔다. 몽골로 2차 단기 선교를 가던 서지연양은 인천 공항으로 가던 중 빗길에 솔취한 운전수의 과속 침범으로 자동차가 전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생각지 않게 몽골에는 파송 교회의 현금과 보험금으로 몽골에 아름다운 지역에 대형 수련장이 건립되어 몽골 교계가 잘 사용하고 있다. 몽골에 24살의 나이로 단기 선교왔던 김영호군은 몽골 으브르항가이 지역에서 선교도중 우박이 때려 구멍이 뚫린 교회 지붕보수 공사에 뛰어 들었다가 감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부모님들은 목회를 그만두고 몽골에 감리교 신학교 교장으로 선교사로 왔고, 다른 세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몽골에 열개가 넘는 교회들을 설립하는 기적같은 일이 생겼다.

몽골에 2007년도에 왔던 YM 단기 선교사들 가

운데는 임무 수행중에 두 명이 물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중국에 선교갔던 재미교포 정 선교사는 북한 선교를 하다가 건강한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몽골에서 한국인 선교사 최 목사와 몽골인 앵흐 바야르 목사가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모두 건강한 그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순교의 영광스런 반열에 올라갔다. 복음을 위해 가다가 먼저 부름을 받은 증인들이다. 그들은 먼저 땅에 묻혔고, 그들 영혼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곁에 있던 가족들과 동역자들은 심한 상처를 받는다. 이런 갑작스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위기 디브리핑(CID, Critical Incident Debriefing)이 필요하다.

3) 선교사들을 털진 시키는 자녀 문제들 선교사들의 발목을 잡는 위기들중 하나 가지는 선교사 가족을 통해서이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 독신의 외로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홀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모국 향수병등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문제, 자녀 학비 문제, 자녀들의 선교지 왕따 문제등이 대두된다.

(1) 한국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비와 자녀 교육 문제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선교사들은 25,000명 정도이고, 그들의 자녀는 2만 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거의 3/4 정도(74%)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교사 자녀들의 과반수 이상(59%)이 파송교회나 주후원 교회에서 학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오직 3% 정도 한국 교회만이 선교사 자녀의 학비를 전액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선교사 자녀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 도움을 줄 수 있다.

(2) 1995년 선교사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선교사 자녀학교(MK School)

동욱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가장 공부 잘 하는 모범생이며 반장이었다. 그런 그가 부모를 따라 몽골로 왔다. 학교를 3번 바꾸고 나중에는 밥안먹고 학교 안가고 땡깡부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 아버지는 결국 몽골에서 탈진하였다. 4년만에 퇴임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몽골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워 초대 교장을 역임했다. 많은 선교사들 자녀들을 돌보셨다. 서기원 선교사 이야기다. 그의 아픔은 많은 선교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사 자녀학교 (MK School) 설립의 이유를 제공했다.

(3) 아르헨티나 선교사의 자녀 문제

서울의 서교동의 서현교회의 목사 아들이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갔다. 그 선교사의 아들은 그곳 주변에 있는 백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했다. 유일한 동양 아이는 날마다 무시당하고 조롱받다가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되어 선교사는 6년만에 미국으로 퇴각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휴유증으로 부모는 고통 당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도하던 그 부부는 훗날 Seed 선교회의 총무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현재는 무주 LA 복음방송국 사장의 선교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박신욱 선교사의 이야기다.

(4) 한국인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 MK)들을 위한 후원학교

현재 한국에는 선교사 자녀들을 돋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집중으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증가했다. 선교사 자녀(MK)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들과 교육지원 기관들이 생겨났다. 선교사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모국의 교육 기관들 덕을 보고 있다. 한동 국제 학교등 기독교 대안 학교들이 수십개가 세워졌고 선교사들은 이를 잘 활용하자.

부모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마

음껏 선교 사역을 하고, 아이들은 신앙과 지식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교회와 선교단체 혹은 교육 기관에 맡겨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분들이 있는 경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계속적인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5) 태국의 어느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 부부가 날마다 아이들을 가정에 혼자인에게 맡겨 두고 밖에 나가 열심히 사역을 했다. 아이는 늘 혼자 집안에서 비디오를 즐겨 보았다. 그런데 어느날 선교사가 돌아와 보니 아이는 비디오를 보던중 귀신의 공격을 받아 정신적인 이상으로 전락해 있었다. 태국은 전국민 대다수가 불교와 미신의 나라다. 다른 영으로 가득찬 나라에서 하루종일 한국 아이가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두서움에 떨고 지내는 선교사 자녀들의 삶. 이것이 어찌 그 아이 혼자만의 일인가? 수많은 한국 선교사의 아이들도 이런 경우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하며, 그분들이 벌여 놓은 선교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도 아동 위기 디브리핑(CID, Critical Incident Debriefing)이 필요하다.

(6) 선교사 자녀 교육 문제 해결 방안: 외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 활용

몽골에서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일부 선교사들은 선교사 자녀 학교(MK)를 이용한다. 중학교 나이가 되면 독일이나 말레이시아, 한국, 카나다, 미국, 필리핀, 중국 등지로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나 일반 학교에 보내 교육한다. 근래에는 중등부 과정이 생겼고, 일부 선교사는 아예 현지 몽골인 학교에 보내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 선교사는 아이들과 소통을 통하여 의논하여 결정하고, 교육비용을 감안하며, 자녀들의 위험 요소가 적은 쪽으로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디브리핑(CID) 사역과 그 선교사 위기들에 대한 대책들

우리는 위에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탈진, 추방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선교 도중귀국이나 퇴임 그리고 거기서 오는 좌절감, 상실감 등으로 선교사가 내면적인 위기를 맞는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영적 고갈인 탈진과 우울증 등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교사들의 거주문제들에 대한 목을 쥐고 있는 비자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를 일으켜 선교를 중단시키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들과 탈선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1) 우리는 선교사들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의 대안

1) 부상병들이 들어오면 입원할 병원과 의사들의 진단과 치유 그리고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런 교회와 후방 선교 단체들의 적극적인 도움들이 절실히다. 담임 목사들과 선교 단체들이 멤버 케어(Member care)와 위기 디브리핑(CID, Critical Incident Debriefing)에 관한 교육을 받아 대처하도록 한다.

2) 선교사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한국 교회들은 선교사들의 문제들을 대중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를 당한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돋는 디브리핑의 전문가들을 길러낸다.

3) 과거에 파송과 정규적인 후원과 기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선교사 문제들도 내 가족 문제처럼 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할 수 있도록 예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건강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비 보험등을 들어 주어 병원치료를 받게 한다.

4) 선교적 비전이 있는 병원 의사들과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선교사가 위기 가운데 입국하면 즉각 연결시켜 치료에 들어가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준다.

5) 선교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크든 작든 심층 분석하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선교사

들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예방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다음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6) 중간 크기의 교회들이나 대형교회들에 있는 선교 목사들은 선교사 문제에 대해 선교사 문제에 실제적으로 대처하도록 선교 위원회를 재점검하고 사후 대책을 준비한다. 선교 목사들이 국내에서 선교 사역에 감당하되, 선교사들이 위기를 당해 돌아오면 즉각적으로 선교사들을 돋는 사역으로 전환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준비 한다.

7) 선교단체는 선교 담당 간사를 내정하고 위기내지 위험요소를 안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도록 보험회사, 기독병원, 치료기관, 멤버 케어 가능한 의사, 기관등을 사전 조사하여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 실적적인 도움을 받도록 한다.

8) 추방, 창의적 접근 지역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중보 기도한다.

(2) 선교사들의 대안

1) 선교사들은 위기를 맞았을 경우 덮어 버리지 말고, 고국의 파송교회, 선교단체, 누군가에게 알리고 도울 자들을 찾아야 한다.

2) 선교사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평가 절하 또는 과잉 반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3) 내면에 흔들리는 불안한 증세 가운데서도 사역에 미칠 영향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4) 선교사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사람, 대화할 사람과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5) 나보다 먼저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의 경험에 조언을 받는다.

6) 위험 요소들은 기도후원자,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에 연락하고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바울처럼 요청한다. 위기시 중보기도 요청자들에게 연락해서 도움 받는다.

(3) 선임 선교사, 선교 지도자들의 역할과 대안

1) 디브리핑(Debriefing)의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도록 하라.

선교사역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국한 선교사들은 좌절감, 실패감, 죄책감, 분노가 생기거나 생의 방향성을 잃고 정체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멤버 케어 담당자는 디브리핑(Debriefing, 사후설명) 전문가가 되어 선교 말기의 선교사들이 힘겨움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2) 선교사 치료자가 되라.

상처받은 선교사로써 먼저 치유 받아본 경험과 배움을 후배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주라. 상처 받은 예수는 상처 받은 우리 모두의 치료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선배 선교사인 당신의 경험과 기도는 후배 선교사들의 위기시 치료에 아주 귀중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선교사 치유와 돌봄은 선교의 한 새로운 영역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20년내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만일 디브리핑 전문가 교육을 지금 잘 받아 놓으면 그 때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3) 적기에 멤버 케어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선교사가 일어나 건강을 되찾으면 남은 사역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적 열매있는 사역이 진행 가능하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며, 죽어가며 자살소동까지 행한 엘리야가 치유받고 새 힘과 비전을 가지고 건강하고 능력있는 재생산하는 선교 사역자로 세워가자 사역은 더욱 빛났다. 한국 교회들이여! 적기에 멤버들을 치유해서 돌려 보내자.

선교사들은 운명처럼 고난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나의 경험을 고백하면, 지난 23년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그 중에는 며칠 동안 가시덩굴처럼 날 찌르고 아프게 만든 상처도 있었다(창 3:18). 주님의 증거를 위해 얼마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행 9:16). 바울처럼 원주민들을 위해 기뻐하며 당해야 하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의 육체에 채워야 하는 남겨진 고난도 있다(골 1:24).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다(고후 11:26).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 던지는 시험도 있으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확신한다(계 2:10).

선교사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은 고난 당한 자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선교지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충격을 받고 영적 환자들로 돌아 온 선교사들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며 환영해야 할 자가 바로 후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다(마 10:40~42). 그리고 선교사들을 만날 때, 그들이 주리면 먹을 곳을 주고, 헬벗으면 입을 것을 주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살피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자(마 25:40~43). 그래서 엘리아처럼 지치고 쓰러지고 탈증이 생긴 선교사들이 우리의 섬김과 치료를 통해 일어서는 것을 보도록 하자. 이것이 멤버케어이며 위기를 당하여 충격을 받은 선교사들을 살리는 방법이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송성규 목사

일산 명성교회 담임목사
K.D.M (Kingdom Of Heaven
DiscipleTraining Mission) 선교회 이사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사운동의 큰 축이다. 선교를 안하면 망한다는 어느 선교사님의 애절한 외침속에 지금도 가슴이 멍하기만 하다.

그렇다 선교는 주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중의 사명이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지금 이시대는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의 예언대로 일곱머리, 열뿔시대다. 기독교를 탄압했던 강력한 7개 제국들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타락주의, 음란주의, 이기주의, 종교다원주의, 쾌락주의, 성공출세주의, 명예주의등 열가지 뿐들이 우리 교회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대이다. 이럴때 개혁주의 바른복음으로 선교하는 일은 매우중요하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일곱머리 열뿔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바른 신앙 전수가 적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부족한 종은 현재 kdm 선교회 이사이며, kdm선교회 러시아 담당자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1년에 한번이상은 제자및 신학생교육차 선교를 갖다온다. 러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선교사이다”라는 확신감이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이 모두가다 선교사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든지 보내든지하라”는 우리교회 선교표어는 정말 멋있는 표어이다. 오늘도 늘 선교사 의식속에 살면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한다.

선교하면서 느낌을 몇가지 적어본다.

1.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틸진을 우리가 잘 도와주어야 한다.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파송부터 인천공항까지는 영광의길, 인천공항부터 선교지까지는 눈물의길, 선교지 도착부터는 고난의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와 풍토가 다른 지역 거기다가 언어까지 안 통할때의 그 답답함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부족하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3년이 지나면 영육간의 틸진이 온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잘 케어 해야한다. 선교사들은 7년 안식년제가 아니라 3년 안식년제로 해서 쉼을 갖게하는 것과 한국 목회자와 교환 목회를 몇 달씩 해서라도 선교사들이 새힘을 얻도록 도와야한다.

2. 선교사자녀(MK)들의 교육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선교사 자녀들이 무슨 죄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사명 따라 갔지만 그 자녀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태국 치앙마이에가면 선교사자녀들을 위한 쉼터와 학교가 있다. 우리 나라에도 그런 쉼터와 학교가 있어서 자녀들의 진로와 교육을 도와야한다. 우리 모든교회들이 힘을 합쳐 그 자녀들의 건강과 진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3. 선교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야한다. 지난달 교단 선교부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곳에 일본과

인도네시아 선교사두분의 간증을 들었다. 그 간증 중 충격을 받았다. 한달에 350~400만원의 후원비가 들어와야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이야기와 그 사역비를 후원받기 위해 한달에 200톤의 후원편지를 보낸다는 이야기였다.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장로들이 많이 있는 교회 순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3교회가 그편지에 응답해 10만원씩 30만원 지원받는다는 이야기였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후배선교사가 같이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다 모금이 아직 안되어서 파송을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나는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속에서 선교사들이 젊음을 바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째 이런 일이 있을까?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마음 놓고 선교사역에 전념하고 선교비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 선교비를 후원해야 한다.

4.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지에서 빼를 물어라는 소리는 이젠 안했으면 한다 물론 그 말속에 담긴 뜻을 충분히 안다. 양화진에가면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밖에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다.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러나 부족한 이 종의 생각은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빨리 제자들을 키워 그 교회들을 맡겨놓고 본국으로 들어오든지 다른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 이 더 옳다고 본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계속 그 교회를 후원하고 지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

5. 우리의 제1 선교지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해외에 나가 선교하고 국내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내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한국교회 앞날은 어찌 되겠는가? 물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해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빨리 구원시켜 그 자녀들과 함께 선교하면 얼마나 하나

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이글을 읽는 모든 부모들이여! 내 자녀들 신앙교육 똑바로 시키는 것도 선교중의 선교임을 명심하자

6. 선교안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가슴에 각인되어야 한다. 선교안하면 망한다. 이말은 2013년 유니버설 케어 봄호에 실린 몽골의 황필남 선교사의 외침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다. 그들은 자체적 부흥을 이루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부적 기쁨도 있었다. 구제도 있었다. 전도도 있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를 보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그 결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선교 명령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강제로 흘어짐을 당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팝박이 생겨서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흘어지게 되었다.

중세 유럽의 교회가 한참 부흥할 즈음에 한 일은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것이었다. 그들은 외적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만 하였지 복음을 들고 세계로 흘어질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이란 돌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일뿐이다.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없다.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 오는 관광객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팝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워진다.

7.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선교 특히 이슬람권에 서 온 영혼들을 선교하라.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다. 아시안게임때 와있는 운동선수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때 전략을 가지고 선교해야 한다. 이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지이다.

끝으로 '왜 선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심각하게 던져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때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주님 재림의 긴박성 때문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 때문이다. 파수꾼이 전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파수꾼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다. 전해야 할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요, 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다. 해외에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들은 모두 영적인 굽주린 영혼들이요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겠는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선교가 필요하다. 국내에도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 국내에 우선을 두자고 하는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는 국내외가 없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고로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한국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 탈진과 멤버캐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해

강다니엘 선교사

요셉비전국제학교 학감
교육학박사
HIS선교회
전 C국 선교사



한국선교가 숫자상 선교사를 보내는 데만 급급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두지 않는다면 한국선교는 선교선진국에서 가졌던 단점을 그대로 반복 할 것입니다. 한국선교가 파송선교사 숫자로 세계2위의 자리매김을 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는 오랜 경험과 선교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를 “선교사 탈진”이라는 불가피한 부산물에 대한 문제점도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변하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와 반대의 것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 탈진”은 좋은 면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어두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도 이 그들은 분명 만들어 지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어두움을 꼭 극복해야만 다음세대 선교에 대한 비전확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 탈진의 의미

허버트 프로이덴버거(Herbert Freudenberger)에 의하면 탈진은 에너지 고갈의 상태이며 주변의 여러 문제로 인해 자신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탈진된 느낌을 말합니다.(Frank Minirth, 1995)

심리학 국제사전은 탈진의 의미를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나 심각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시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때

때로 우울증을 동반하는 정서적 소진 상태”로 정의 합니다(Stuart Sutherland, 1989)

탈진에 대하여는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은 “대개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 되는 증후군으로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소진 비 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을 축소하는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라 정의 하였습니다.(D.G. Congo, 1990)

결국 선교사 탈진이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변의 여러 환경과 사역에 관한 일들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증후군을 사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탈진의 요인

일반적인 탈진의 요인은 “장기간 업무, 그 업무에 관한 짧은 피드백, 적은 봉급, 인원부족, 삶의 변화들, 비 현실적인 기대들, 휴식시간의 부족, 시간관리에 대한 무능력”과 같은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Herifetz와 Ber-sani는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일차적 인과관계대신 환경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습니다.

3년 이상의 장기 선교사의 경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찾아 오게 됩니다.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그들로 하여금 탈진이라는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어떤 한 것들이 있을까요? 선교사는 문화와 국가를 초월하

여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첫 선교지의 부임은 그들에게 문화충격과 언어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먼저 안겨 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가정의 불안정함 등도 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폴히버트는 이는 그 선교지가 가난한 곳이고 불결한 곳이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깊게 살펴 볼 일은 우리나라 선교사의 경우 우리나라를 가난도 겪은 나라이고 잘 갖추어진 의료혜택도 받는 나라이기에 한국선교사의 경우에 오는 충격은 문화적인 충격과 언어적인 충격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국가이고 전국의 어느 곳을 가도 문화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인 충격은 선교사들의 초기 사역의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장기 선교사의 경우는 이와 다른 원인이 탈진의 요인이 됩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현지 사역자들간의 갈등,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기혼자인 경우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폴히버트는 선교사들의 탈진 요인 중 하나를 정체성 상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본국에서 자신의 소속된 집단에서의 위치를 선교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여 받는 스트레스로 정의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옛 정체성은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특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역자의 경우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선교사들의 탈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요인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사역의 진전이 없다.
- 2) 현지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은사와

재능에 맞지 않다.

- 3) 다른 동료 사역자들이나 현지인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있다.
- 4) 선교단체, 파송교회나 기관과의 갈등이 있다.
- 5)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쁜 탓에 휴가나 쉼을 갖지 못하고 있다.
- 6) 사역자의 배우자가 사역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의 탈진의 요인들은 결국 선교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일로 만들어 나가게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1983년 마이론 로스(Myron Loss)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타문화권 사역에서 중도탈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는 인력과 재정면에서 심각한 손실이다”라고 말하며 선교사들의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선교사 멤버캐어

선교사 멤버캐어는 1980년대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1900년대 초반에는 전문분야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1970년부터 많은 선교사 멤버캐어에 관한 논문들이 그 문제성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탈진으로 인한 선교사들의 중도탈락에 대한 걱정에 대한 관심들의 표방이었고 결국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당연히 캐어를 받아야만 하는 논리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사역자들도 인간이라는 나약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공헌을 했으며 그 인식은 여러가지 형태의 시스템들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선교사 멤버캐어의 개념

켈리 오도넬은 멤버캐어는 한 단체나 교회의 사역이 아닌 우리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돌봄을 마련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선교단체, 파송교회, 선

교에 관련된 기관들이 선교사 개인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은 선교사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평온을 위해 계속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을 관심 있게 정기적으로 만나 주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며 선교사의 전 생애, 즉 선교사의 선발에서 은퇴까지 돌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파송교회나 선교단체, 선교동역자, 그리고 선교사 관리의 전문가들이 다 함께 선교회의 식구 모두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강승삼, 1998)

(2) 선교사 멤버캐어의 필요성

선교사의 수는 한국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의 경우 한시적으로 잠깐 성장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곧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멤버캐어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선교사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전략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또 다른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가 수많은 현장에 존재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멤버캐어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선교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때 “외딴곳으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일들도(막6:30-32) 멤버들의 상태를 잘챙겨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습니다.

(4) 멤버캐어의 실제적 어려운 것들

브루스 스완슨은 멤버캐어를 해 나가는데 세 가지의 장애를 언급합니다.

1) 서구세계는 물질적이며 너무 과제 중심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의 성취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 들이기 됩니다.

2) 정보와 이해의 부족들로 인해 생기는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들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등등.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마치 완벽한 인간처럼 여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지치고 약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무한한 필요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원에 대한 장애입니다. 세상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는 무한할 만큼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제한함과 재정의 제한함은 멤버캐어를 어렵게 만듭니다.

(5) 멤버캐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3) 성경적 멤버캐어

켈리 오 도넬은 멤버캐어에 최상의 실천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관계모델(model of relationship)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휴식과 격려와 회복을 제공하시길 원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바알의 예언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털진의 증상이 찾아와 누워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를 깨우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왕상 19:1-9) 사건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아

1) 선교사가 스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억힐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자기의료(Self-reference)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관리자에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인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적절한 시기에 쉼을 얻는 시간도 만들어야 하고 건강도 돌보기 위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으로 자

신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털진이 오기전의 예방도 됩니다.

2) 후원교회와 선교단체에서의 조직적 격려와 지속적인 돌봄

후원교회와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그들의 사역에서 문제를 생길 때 자칫 자신들의 주변과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사람들이 해당선교사를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할 수 있기 오해가 종종 생겼기 때문입니다. 약 50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들은 털진 증상이 보일 때 파송한 교회와 파송단체의 담당자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담전문 기관의 상담사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교회와 파송단체는 선교사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기 이전에 충분히 그들과 교류를 하여서 그들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당선교사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3) 팀사역을 통한 선교사들의 멤버캐어

선교사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은 다른 동료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같은 선교지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는 경우라면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큽니다. 세상의 비지니스는 무한한 경쟁 속에서 치뤄져야 하는 것이기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보다 경쟁자가 되어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다릅니다. 서로간에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위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선교사가 아니라도 선교단체나 기관의 선교사들의 연합이나 국제적인 선교사들의 모임을 통하여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개별적인 선교사 관리 시스템 하나를 개발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세계 선교사들이 공유하는 일이

라든지 매년 4년마다 열리는 시카고 세계한인선교대회와 같은 모임 등도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 선교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 선교상담 전문가의 개발과 양성

선교인력을 잘 돌보아 주는 것도 선교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선교상담 전문가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선교사들이 털진증상을 보일 때 자신의 파송교회의 담임목사님보다 전문적인 상담가에게 캐어를 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상담전문가 또한 그 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선교상담 전문가는 일반 상담사와 많은 다른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라는 사역자가 많은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이기고 사역을 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는 그 선교사보다 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상담 전문가는 단시일에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장이고 현재 KWMA를 맡고 있는 강승삼교수는 선교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에 적합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케리 콜린즈는 선교상담전문가의 경우 일반적인 기독상담전문가와의 차별적 구분을 주장합니다. 이는 타문화권을 경험한 사람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5) 선교사 재교육

지역교회는 자신들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책임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글린 헤르(Glenn Herr)는 언급을 합니다. 멤버캐어팀은 선교사의 현지교육프로그램이나 본국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예전에 배운 학문적인 지식이 새로운 학문에 밀려 쇠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신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신학교 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선교사 재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올 수 있는 선교사의 수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팀 사역을 하는 선교사인 경우는 찾아가는 교육도 바람직 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닌 것 입니다. 동영상이나 좋은 교재개발도 필요합니다.

(6) 은퇴선교사들을 위한 준비

선교사는 과연 늙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들의 생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은퇴 목사, 은퇴선교사는 꼭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인 것이지요. 특히 은퇴선교사는 더 현실이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본국으로의 귀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고난을 감당해야 할 일들만 남게 하여 선교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오래 전에 선교지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뼈를 물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위기에 있고, 또한 추방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거나 세를 얻기 위해 모아 놓은 돈은 없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두 딸의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을 후원해 주는 파송교회가 있긴 하지만, 자녀들의 학비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50대 후반이어서 조금 있으면 은퇴를 맞게 되지만, 준비한 것이 없으니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고 보내진 선교사만 관리되어지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선교사 맴버캐어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법의학자와 의사 군인들이 백두산 근방을 몇 달 동안 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때 추락한 전투기 조종

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현지인들도 저 또한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그 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고생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제 머리를 스치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군인 한 명을 그냥 전쟁에 보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들의 의지이구나’ 이런 군대라면 저도 한번 지원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선교의 현실은 선교사 한 명 선교지로 보내고 교회주보에 이름 올리면 끝! 선교사 한 명 파송! 보낸 것이 파송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돌아와서 죽을 때 까지 책임을 지는 것 까지가 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국제선교학저널(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IBMR)에 발표된 한국선교연구원(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KRIM)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는 지난 2011년 177개국에서 19,373명이 사역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약 1/4인 24.3%가 50대 혹은 그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야 할 선교사들이 약 5천명 정도될 것이라는 보고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의 경우에도 탈진에 대한 대비가 농담지 않은 상황인데 은퇴선교사까지 대비해야 할 과제가 한국교회에 남은 숙제이지요.

한번 하고 그만둘 선교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겠지요” 라고 누가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 틀림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 닿는 만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 탈진에 대한 문제라든가 맴버캐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만 봐도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정책은 더 발전적일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선교지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추억으로 남은 저의 경우도 한국에서의 정착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우리

가족의 앞에 펼쳐져서 감사하게도 모두들 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교와 목회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버린 선교사님들도 여럿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아까운 천국의 인재들이 자녀의 학자금대문에, 살 집이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택시운전으로 일일 노동자로, 사모님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일 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한국에도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사의 탈진도 해결이 되어지고 세계선교를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경험을 가진 은퇴선교사님들로부터의 조언도 들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쳤으면 합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로스토크 나도누



선교 8년차가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추방이라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죽으라'는 말씀으로 우리 부부에게 저녁을 사 주시면서 파송 교회 황영석 목사님께서 다짐을 주셨건만, 선교지에서 죽지는 못 할지언정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비침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지에 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았다. 그러다가 아내는 그만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다. 아내의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버티면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는 죄목으로 선교지를 나와야 했다. 물론 그것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할 뿐이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선교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현지 경찰의 계략이었고,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사단의 배후 조정이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다. 당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던 터라 나는 한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느낌으로 가득했다.

40~50도의 무더운 여름 날씨를 7년 동안 에어컨 없이 견디다 마침내 에어컨을 장만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자 했는데, 클러치가 너무 빽빽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준 현지 러시아제 자동차에서 오른쪽 핸들의 10년된 일제 니산 중고차로 바꾼 지 수 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호사(?)를 누려보고자 했던 우리는 달랑 이민 가방 2개와 손가방만을 챙겨 정해진 기간 안에 카자스탄 크즐오르다를 빠져 나와야 했다. 알마타

에 계신 김동일 목사님께서 우리 4 식구를 맞아주셨다. 애들은 오랜 만에 도시 문명을 만끽하는 신나는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선교지를 두고 떠나온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무거울 뿐이었다. 김선교님께서 길 가면서 쓰라고 1500달러를 쥐어 주셨다. 같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그 같은 액수의 돈을 쥐어 주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종교법을 위반 했다는 현지 경찰의 고발로 몇 번에 걸친 재판을 진행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그저 마음의 빛으로만 품고 있으며, 그 생각이 들때면 눈물이 글썽거리기까지 한다.

본국으로 들어와 서머나 교회 선교관에 머물렀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이 부끄러울 뿐이다. 정확히 1년 후 나는 또 다른 사역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다른 선교지로 주님의 응원해 주심을 확인하며 고국을 떠날 수 있었다. 본국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선교부 이현상 목사님과 신금옥 전도사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다. 한국으로 들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아직 선교지를 떠나와야 했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치 공중에 봉 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선교부에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하였다. 선교부로 갔더니 다짜고짜 자동차를 태우시더니 차를 모셨다. 서울을 빠져 나가면서 자동차는 점점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향해 빨려 들어가듯 가고 있었다. 북한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기 시

작하더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경기도 어느 시골에 멈추었다. 음식점이 예쁘게 들어서 있는 마을이었다. 잘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차례 차례 등장했다. 식사 후 공원 비슷한 산 기슭을 걸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은 이 일이 있은 후 8년여 세월이 흐르고 있음에도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이유가 있다. 음식의 맛 때문도 또 시골 지역의 풍경 때문도 아니다. 그때의 순간이 이처럼 나의 기억의 저장 창고에 남아 있는 이유는 아픔을 안고 추방된 선교사를 위로해 주는 조금이라도 선교사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기억 속에서 오래 전에 지워졌을 것이 분명하다.

선교사 2만 시대다. 한 마디로 선교사가 넘쳐 나는 시대다. 선교사라고 하여 절대로 특별하다 할 수 없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똑같기 때문이다. 선교사도 자신의 사명을 따라 주님을 위해 헌신 할 뿐이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저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헌신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는 선교사는 고국에 남아 헌신하는 이들에 비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고국의 '베이스 캠프'로부터 공급 받지 못한다면 사역과 심지어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베이스 캠프에서 전해 주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는 가는 선교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활력과 안정을 심어주며 사역에 커다란 힘을 주는 것이다.

17년째 접어든 선교 사역 중 고국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렇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것은 가장 힘들 때 받았던 위로와 사랑이다. 비록 식사 한 끼 나누는 시간을 가질지라도 선교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떠받쳐 주는 정성을 쓰는다면 선교사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감동일 것이다.

유니버설 케어에 감사를 드린다. 본국에 들어갈 때마다 적지 않은 비용의 치과 치료를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실천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료로 치료해 주어 너무 감사할 뿐이다. 실은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이유는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을 뒤로하고 본국에 들어갈 때마다 병원을 찾는 이유는 선교사 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유니버설 케어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랑의 빛진 자가 되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의 사역자가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9년차 선교사가 느낀 선교사 케어

중앙아시아A국 김아글라

중앙아시아 A국에서 사역한지도 벌써 9년차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여곡절과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이 땅을 지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한 축복이고 저희를 파송하고 협력하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인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의 작지만 뿌듯함일 것이고 자랑일 것이다. 두괄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선교사에게 가장 크고 좋은 케어는 파송교회와 파송단체 그리고 협력교회와 단체 그리고 후원하는 개인들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부흥 발전과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선교사들의 밑가지가 되어 주는 것이다.

특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협력단체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단기선교팀을 보내는 것은 사역하는 선교사로서는 최고의 선물이고 위로가 된다. 그것은 파송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선교지에 대한 애정과 현지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선교사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도 기쁜 일이고 가슴 뿌듯한 일이지만 현지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를 찾아주는 것 그리고 선교지를 그리워해주고 또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만큼 더 기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기를 기대하고 좋아 하지만, 특히 열방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특히나 한국에서 멀고 닫힌 지역이며 한번 찾아보기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외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자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연말이나 성탄절 같은 날에 MK(선교사 자녀)들에게 작은 한국과자 한봉지라도 보내고 새해 교회 카렌 다나 다이어리라도 한권 보내드린다면 소속감과 정체감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요즘은 정보매체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어느 선교지에서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뱅크 등등 수도 없는 SNS 매체를 통해서 한국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이 느리거나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유자재로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3G가 개통가능하기에 거의 Real Time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발달된 매체들이 사역에 방해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역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긴급한 기도제목이나 자주 쓰지 못하는 기도편지에서 전하지 못하는 간단하고 중요한 선교지의 상황들을 공유하기에는 너무나도 편리한 도구이다. 혹시나 제때제때 답장이 없더라도 이해 해주심이 필요하다.

선교사로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역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파송받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사역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선교지에 사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 방식의 나름대로의 사역의 계획과 속도감을 갖고 있기에 파송교회나 단체에서는 통상적으로 파송 후 현지 체류의

햇수가 더해갈수록 사역의 열매 또는 실적을 요구하곤 하는데 분명한 주관과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역의 열매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사역보고 요구를 받을 때에는 마음이 어려워져서 자칫 이중적인 보고나 허위, 과장 보고로 양심의 갈등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선교사의 지속적인 사역에 흡집을 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보내는 편에서는 최소한 한 Term(통상 5년간)간은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역의 열매보다는 사역의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선교지에 나온 후 1년간 초기정착기간을 지내고 3년까지는 단1명의 제자(제나름대로 통상적으로 '제자'라함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정기적으로 제자훈련과 양육을 받고 있는 단계로 세례를 받은 상태)도 없었다. 그후로 물론 다양한 열매를 허락하셨지만은 단 1명의 열매도 없었던 그 당시에는 정말이지 저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소명감 마저도 의심할 정도로 의기소침했었고 파송교회와 단체 그리고 후원자분들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파송교회의 담임목사님의 한 마디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새힘이 되었다.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선교이고 열심히 하다보면 주께서 열매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니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즐겁게 사역하라”

저를 포함한 선교사들이 의외로 약한 존재라는 걸 그 당시에 실감했었다. 때로는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많은 후원금보다도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이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현장성을 갖고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사역자이지만 후방에서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역자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방없는 전방이 없고 보내는 자 없는 보냄을 받는 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안식년이나 필요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국시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선교사의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본국에서 베이스캠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가가 그 선교사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것 같다.

필자는 2년전(2012년)에 만 6년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으로 4개월간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키맨을 포함한 많은 파송교회, 협력교회, 협력단체 및 개인 후원자 및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주셨고, 차량을 빌려주셔서 어디든지 맘껏 다닐 수 있게 해주셨고, 온 가족의 건강을 검진해주시고, 치과 치료를 전액 무료로 온가족을 4개월내내 치료해 주셨으며, 초대해주셔서 맛있는 한국음식을 사주셨고, 교회로 초청해서 사역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좋은 집회를 소개하고 같이 가주셨고, 후원범위를 넓혀주셨고, 이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한 은혜를 입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2기 사역을 하는데 원동력과 새힘이 되었다. 만약에 이러한 본국의 후방지원이 없었더라면 번아웃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뿐인가? 선교지에서 때때로 사역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또는 계획된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기도부탁을 드릴때마다 후방에 계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헌신을 하셔서 큰일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것 또한 멤버케어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끝으로 저는 이 한마디로 이글을 맷을 려고 합니다. 전방에 나와있는 선교사와 더불어 후방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공동체도 섬기고 가족을 돌보면서 선교지도 돌아보고 선교사도 쟁기는 후원자가 동일하게 선교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팀사역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가는 선교사가 후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현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고 각자 맡겨진 미션임무에 목숨을 걸고 사역함으로써 주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끝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본국의 모든 교회와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멤버 케어를 떠 올렸을 때 스쳐 지나간 생각 몇가지

(서구와 한국교회의 차이)

M국 진리 안 선교사

1. 13년 전 저는 MK교사로 C국에서 6개월간 머문 경험 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의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세 아이를 도우러 간 것인데 가서 보니 그 곳이 거점 도시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터라 한 국민 가정이 6가정이나 더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간 자매(지금은 저희 단체 소속의 선교사로 I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는 넓직한 집을 렌트하여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세 아이의 시간표를 짜서 작은 학교를 하였습니다.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체육 시간, 실험 시간, 피아노 시간, 전래 동요, 요리 시간... 정말 다양한 시간들로 꽉 찬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위의 한국 선교사 가정은 저희가 돋고 있는 선교사 가정을 너무 부러워 했습니다. 하물며 선교 단체를 바꾸고 싶다는 말씀을 농담조로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엔 그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를 열어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 얼마전 저희와 같은 도시에서 지내던 미국인 선교사 가정에 장염이 돌았습니다. 먼저 6살된 첫째 아들, 2살 난 둘째 아들.. 그러다 급기야 아빠 또한 장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엄마까지 장염에 걸릴 수 없어 그 엄마는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한 나머지 세 가정은 멤버 케어를 위한 비상 상황에 돌입하였습니다. 멤버 케어 담당자가 스케줄을 짜서 점심과 저녁, 두 아이 샤워 시키고 잠자리 들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서로 점검하며 그 가정을 도왔습니다.

저희가 속한 단체는 국제 단체의 큰 우산아래에 있는 회원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이 단체는 소속된 회원 선교사만해도 몇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저희 GBT는 멤버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는 나라에서 시작된 단체이다보니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과 노하우라는 혜택이 후대인 저희가 누리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겪은 경험속에서 제가 바라 본 서구 선교 단체는 멤버 케어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장기적으로 볼 줄 아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비상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나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드에 가기 전 받는 교육, 필드에 도착해서 받는 교육, 정착 과정에서 받는 교육속에 정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짐 꾸려야하고, 짐 풀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할 때 읽어보라며 받은 문서들이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까지도 소개받고 참고해야 하는 흥수속에서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선교역사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된 것으로 치자면 30~40년 역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한국 교회에게 선교라는 과업은 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었기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에 전심전력으로 달려온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멤버 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머리로 인식되는 것 만큼 삶으로 자연스럽게 되기엔 상황적으로 역부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료(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들과 교제하면서 받은 또 다른 한 가지 인상은 서구의 선교 단체뿐 아니라 교회 또한 선교나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에게 실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바로 교회 또는 동역자들에게 표현하고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인 동료 선교사와 교제를 할 때면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나 어려움들 대화의 주제가 될 때가 많은데 말입니다. 한국 선교 단체는 아무래도 선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선교사에 대한 이해(멤버 케어를 포함하여)가 교회에 비해 높지만 교회는 아직 선교 단체와는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한국 교회에서 선교라는 과업에 대한 이해는 높은 반면, 선교사 자체에 대한 이해는 낮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멤버 케어는 선교사 자체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멤버 케어에 대한 실천력이 떨어지는 것은 비단 한국 선교의 짧은 역사 때문 만은 아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과 사람이 분리가 되고 과업에 의해 사람이 소외가 되는 현상은 빨리 성공을 이룬 한국의 사회적 병폐이고, 그 흔적들이 교회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자신이 이룬 성과들만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고, 성도들은 과업의 성공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카테고리 밖으로 나와, 성도와 선교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제와 이해가 좀 더 넓어지면 멤버 케어가 조

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지적 측면의 실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모두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하나로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면, 멤버 케어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 자신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경험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몽골 쇼브링 파브릭스

“세상 끝” 교회

새성전 건축



2013년 몽골 아웃리치 사역 마지막 날 사역지였던 쇼브링 파브릭스 지역엔 때아닌 비바람이 몰아 쳤습니다. 아침에 장정 여렷이 매달려 한/ 몽 합작으로 지은 천막은 비바람에 속수 무책이었고, 야외에서의 집회는 포기하고 좀디 좀은 교회로 들어와 발디딜 틈 없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볼 품없는 교회 건물, 벽에는 구멍이 나있고,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아 이웃집에서 전기를 끌어다 겨우 불을 밝혔던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본당 앞면에 그려진 성화 같은 벽화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순수함에 역설처럼 이 교회가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비춰지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쇼브링 파브릭스는 영적으로 매우 공격이 심하고 어려운 땅이라 했었습니다. 이 날도 우리의 집회를

방해나 하려는 듯,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천막이 이리저리 날라 다니고, 도저히 전도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성전 안에서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보르향니 지구르(하나님의 날개) 교회 성도들의 간증과 나눔 속에 우리는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몽골 말로 '십자가의 전달자를 찬양하며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전달자처럼 살고 있노라하며 간증할 때 주님은 이 몽골인들의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 오셨기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몽골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고, 황필남 선교사님은 그 낡고 쓰러져 가는 교회당 옆 컴퓨터에 새 성전을 지을 것을 제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2~3년을 목표로 Universal Care 는 한

정진호
Universal Care 대표
연세U치과 원장



국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십시오! 세상 끝 교회 성도들은 다음주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작정헌금을 하고, 저는 미국에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같이 손을 불잡고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곳에 아름다운 성전, 아니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전기가 들어와 맘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Universal Care 와 같이 작은 선교회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와 정기예배를 통하여 몽골 땅에 교회를 지을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감당한다면 송금 한번으로 끝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지극히 적은 무리인 UC 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재정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계산 속에는 이렇게 빨리 그 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덧 1년이 지나고 다시 몽골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몽골에 교회를 지어야 한다면서요? 제가 사실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예배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일을 시작하셔서 감동주시고 그 때부터 꼬박 1년동안 적금을 부어 준비하신 천만원의 귀한 현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참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했지만, 이렇게 준비 되리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급하셨고, 서두르셨습니다.

가끔은 선교회를 감당하면서, 정말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냥 남들 취미 생활 하

듯 나 좋아서 하는 일일까?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선교, 열심히 도우면서 하면 됐지,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본디 믿음이 없는 자라, 주님이 시키셨으니 하긴 하면서도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임을 다시금 확인 받는 기회가 됩니다.

황선교사님과 상의 끝에 일단 그 현금을 발판으로 시작해보기로 하고 현금을 '2014 몽골 아웃리치' 팀과 함께 갖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시작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겠지' 하는 자그마한 믿음이 저희에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음교회와 팀이 꾸려지면서 많은 동역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예음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때론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성전 건축에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니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환율이 약 2배로 낮아져 (원화의 가치가 높아져) 회개 집사님이 돈을

써도 써도 안 준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방문하는 몽골 각 교회 지도자들마다 격려금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선물하는데 그렇게 맘껏 하고 온 적은 없었던 것 같



습니다. 또 돋는 손길을 불이셔서 최**선교사님을 통하여 숙박비에서도 약 3백만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비에서 남은 것, 또 팀원들의 현금 등을 통해 2100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몽골 현지 건축가가 내놓은 예산은 약 2500정도였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사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이 소식을 나누자 UC 후원자인 한 집사님께서 나머지를 감당하겠노라 하시며 나머지 금액을 현금 하셨습니다. 참 절묘한 조합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붕을 이어가듯

선교지에서 온 편지

현금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보름이 지났을까요? 교회는 7월초 벌써 완공이 되고, 현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지어진 많은 교회를 보면 많은 분들의 헌신과 교회의 현금으로 지어진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아들을 생각하며 현금을 보낸 분의 이름이 적힌 현판이 붙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현금 하여 지었노라며 철판으로 교회 문 옆에 잘 보이게 붙여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쇼브링 파브릭스 '세상 끝' 교회 새성전에는 그 어는 누구의 이름도, 그 어떤 공동체의 이름도 붙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지어졌음을 우린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현판 안에 가둘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교회에 가득함을 봅니다. 이것이 이 글을 남겨 이 땅의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이유입니다.

현당예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와서 그 성전은 그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작은 순종으로 하여금 주의 크심을 보게 된 우리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려면 그 건물을 지어준 한국 선교사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교회의 이름처럼 '세상 끝', 바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

회가 되어야 비로소 그들과 주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 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014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주님은 요한복음 1장 50절을 통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몽골을 다녀온 후 UC 공동체에겐 30년을 기도하며 이슬람의 문을 여는 자가 되리라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3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때론 주님이 주신 비전인지도 헛갈릴 수 있는 그 큰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쇼브링 파브릭스 세상끝 교회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봤지, 너희가 꿈꾸는 거, 너희에게 도무지 이루어질 거 같지 않은 그 일 내가 1년 만에 이루는 거. 앞으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비전을 보여주더라도,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꾼 소망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 꿈 반드시 이루어 질 거란다. 만약 너의 생각운데 보지 못한다면 너의 자녀를 통하여 그 꿈은 계속될거야. 나는 신실하단다." 인내를 갖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 하십니다. 그러나 앱니다. 우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그리고 봅니다. 그 것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일임을.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에 뿌려질 한 줌 모래임을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간 평안 하셨는지요?

교회와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의 예수생명교회(Life of Jesus Church)와 저희 가족은 지난 13년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의 아낌 없는 사랑과 기도로 인하여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시간 선교지의 소식을 지면을 통하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은 나

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고 지난 13년간의 발자취를 돌아 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모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두 개의 컨테이너를 구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 하여 아주 작은 교회의 가건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포트엘리자베스에 거주 하고 계시는 6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하여 함께 건물을 세우고 은혜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현당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후 2013년 1월에 갑자기 불어 온 강풍으로 인하여 교회의 지붕이 날아 가는 아픔이 있었고 교회 주변의 6가정의 가옥들의 지붕도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하나님의 보호 하심으로 인명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후 교회 지붕을 복구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물을 바라보면서 가건물 건축을 위하여 시청을 오고 가며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로 임시 가건물의 하가를 받지 못했고 시로부터 정식 건물을 건축 하라는 최종적인 통보를 지난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지붕이 없는 예배의 처소를 재건

하지 못하는 그 아픔은 지난 13년간 걸어 온 길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붕이 복구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님들께 선교지의 소식을 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상고마(무당)들의 조롱과 예수생명교회에 대한 집요한 영적 도전들이 이어지고 교회 주변에 있던 조상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무리들의 그 강력한 영적 도전으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포기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을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죽고 싶은 심정을 가졌던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의 어린 생명들의 자라남과 자녀들을 통하여 저를 위로 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의 시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해 더 깊은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있는 선교지, 내가 섬기고 있는 코사족, 그들에게서 그 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귀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사족에게 우리가 갖지 못한 귀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UBUNTU” “I AM BECAUSE WE ARE”

이것은 코사족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그들의 정신입니다. 한 인류학자는 아프리카 부족 중 하나인 코사족의 아이들에게 놀 이를 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달콤하고 맛난 과일을 한 광주리 가득



담아 나무 곁에 두고 아이들을 불러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서 저 나무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 과일들을 모두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출발 하라는 소리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한 걸음씩 그 나무를 향하여 걸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가 함께 그 나무에 동시에 도착하여 광주리에 담겨 있던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 보고 있던 그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 하였습니다. “UBUNTU” “I AM BECAUSE WE ARE”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코사족은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년에 한 두 차례 치르는 가문의 의식을 통하여 피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 날에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가문의 사람 가운데 신 내림이 있거나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이 굿을 통하여 조상신을 부르고 그들과 접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접신을 통하여 조상들로부터 받은 말이나 떠오르는 말을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들려 줍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마지막 순서로 큰 그릇에 담가 두었던 전통 주를 가득 담아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돌아 가며 한 모금씩 마시므로 혈연 간에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치르며 자라 나는 어린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깊이 그 뿌리는 내려 갑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동체 의식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 속에 살아 가게 됩니다.

이처럼 “UBUNTU”라는 아주 짧은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는 “나의 형제가 행복 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한 몸이라는

정신과 우리는 떼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자체 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랜 시간 선교지에 있었고 코사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그 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게 하시므로 코사족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사족에게 주신 귀한 마음은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미션에서는 선교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UBUNTU” “I AM BECAUSE WE ARE”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코사족은 그 어느 부족 보다 더 소중한 선교적 자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족임에 틀림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 22:37~40)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 목표이요 계획입니다. 이 말씀이 곧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살던 사람,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 나의 조상들만 존경하며 신처럼 모시고 살던 사람, 나의 부족 그리고 동족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코사족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코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UBUNTU”의 정신을 승화시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한 알의 밀이 되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그들의 희생적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이곳에 남아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그 나라를 이루어 갈 선교적 측면에서 코사족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는 그 어느 족속 보다 더 요한복음 22:37~40절 말씀을 잘 행하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코사족은 오랜 시간 깊은 영적 무지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일에는 그 어느 부족 보다 더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 특심이 되어 그들의 삶 전부를 드리는 부족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이외의 삶에서는 철저히 조상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가고 있는 코사족은 낙천주의자들처럼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영혼이 고통과 탄식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 고통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학수고대하며 찾고 열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19~26)

코사족의 영혼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안개와 같은 스타도 아니요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코사족의 영혼이 학수고대하며 열망하며 찾는 것은 깊은 탄식과 고통 속에서 곧 그들의 영혼을 품고 감싸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 시켜 줄 진정한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고통 속에 있는 코사족의 영혼을 위로 해 줄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코사족을 둘이켜 하나님께 을 향하게 하는 것, 코사족의 영혼을 위로 할 위로자로 그들과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코사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 하는 그것이 제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존재 이유로 목적입니다.

오랜 시련 속에서 나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때에 비로소 코사족을 바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곧 멸망 할 니느웨성을 바라 보시며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계획이 코사족을 바라 보시며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조상신을 섬기며 철저한 부족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코사족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만지시는 날, 그들은 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 날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코사족은 깊은 수렁에서 깨어나 부족의식에서 벗어나 열방과 온 족속을 향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족속임이 틀림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하며 고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코사족을 깨우시고 쓰시는 날입니다. 코사족은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족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가장 축복 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대륙 가운데 남아공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남아공 내의 국민들은 많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종족이 이루는 나라, 그 다종족 가운데 코사족에서 흑인정부 일대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2대 대통령인 타보 음

백기 대통령이 배출 되었고 남아공에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은 배출한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사족을 깨우시고 쓰시는 그 날이 오면 그들 안에서만 있던 “UBUNTU”의 정신이 더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족속들을 자체로 여겨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한 형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일생이 코사족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 합니다. 수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또한 이 연약한 자에게 동역자로 붙여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었음을 고백 합니다. 그 동안 코사족 선교에 동참 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변함 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 걸어 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의 원년입니다.

예수생명교회

예수생명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 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편모나 편부 슬하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

게는 늘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위로가 필요 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 합니다. 그것은 늘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붕이 없어 비가 올 때는 컨테이너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날씨가 맑아 지붕이 없는 예배당에서 땅볕을 받으며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 합니다.

교회 주변에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던 환경이 파주전원교회와 하람선교회를 통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울타리를 친 이후로 이제 제법 교회의 대지 위에는 초록의 잔디가 피어나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 알맞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예수생명교회의 아이들은 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주 적은 것으로 학업에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미래를 준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아이들 가운데 거두 실 열매들을 기대 하며 소망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코사족의 아이들은 코사족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것은 아이들 안에 있는 “UBUNTU”의 정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교육 이외는 다른 길이 없



습니다. 끝 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 그 가르침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전인격적 교육,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 바람을 막아 주며 따가운 햇살을 가려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 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 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시설을 건축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고 있기에 몽골 텐트와 같은 등근 원형의 텐트라도 설치 되어지기를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술교육

지난 해 5월부터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카페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실기 교육입니다. 남아공은 아직 컴맹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컴맹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분포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넓습니다. 교육의 과정은 3개월에 걸친 혹독한 실기 위주의 교육과 함께 삶의 기본 자세인 정직, 성실 그리고 미래를 준비 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물론 그 모든 교육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남아공은 자격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의자에 앉히고 견본을 주어 타이핑을 하도록 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이력만큼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 2년 코스 때로는 3년 코스를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 했다 해도 실전에서는 그 동안 받았던 교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 오는 청년들 가운데 대학 졸업자가 50% 가 넘고 그 나머지 청년들은 최소 이수한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나 전문학교 졸업자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끊임 없이 일이 주어 집니다. 때로는 난해한 도표를 그리는 일도 주어 집니다. 실기를 훈련 받는 동안에 끊임 없

는 무언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은 인생의 앞날을 준비 하는데 필수적인 정직한 삶, 성실한 삶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팀월을 이루는 교육입니다.

이곳에서 3개월을 인내하며 견뎌낸 사람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며 사회에 공헌 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일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밖에는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는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컴퓨터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의지하고 그 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인터넷 카페의 주변에 계시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에게서 종종 컴퓨터 교육에 대한 문의가 들어 옵니다. 그 분들의 상담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전인적 교육을 받고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 가게 되는 소망입니다.

구제 사역

2013년 2월부터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노숙자들의 급식 사역에 협력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급식 사역은 현지의 구세군 교회와 함께 하는 연합 사역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한인 선교사들이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은 현지 구세군 교회가 이 일을 하며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급식 사역이 초기에는 40여명 정도였던 노숙자들이 이제는 80~100명 정도가 매주 화요일과 목

요일에 정성껏 준비한 따듯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노숙자들과 나눌 음식을 매월 한끼를 준비하는데 협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사역에 동참한 것에 큰 기쁨을 얻고 있으며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사역이라는 점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협력 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다른 일을 놓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현재 급식 하는 일에 협력 하고 있는 현지 구세군 교회가 오래 전부터 해 오던 매춘부들을 위한 급식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협력 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동참 하셨고 저희 부부는 아직 이 일을 놓고 기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음식의 나눔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이 일을 놓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은 그 어느 때로 보다도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에이즈 균을 보균 하게 되고 그들은 그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포장하여 그 위에 성경 말씀을 붙여 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일로 전환 되기를 소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소원 합니다.

남아공 피이 한인 청소년 예배

피이 한인 청소년 예배는 피이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 선교사 모임에서 결정되어 2012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세 가정의 선교사 부부와 저의 아내 한은경 선교사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섬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이에 15명 정도의 선교사 자녀와 유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 하였습니다. 올 해 2014년 1월부터는 처음에 청소년들을 섬기던 선교사님들께서 본

연의 사역으로 복귀 하므로 말미암아 저와 아내 그리고 한 가정의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한 분의 남자 선교사님께서 2014년부터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현재 예배를 드리는 학생은 저희 가정의 둘째 자녀 이 그리고 막내 하은이를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이 섬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장의 직분을 주셨고 아내 한은경 선교사에게는 서기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2014년 남아공 피이 청소년 예배의 표어는 신명기 6:4~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피이 한인 청소년 예배는 저를 비롯하여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한 달씩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삶을 가르치는 선교사님, 성경을 삶에 적용 하는 법을 가르치는 선교사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참 의미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달란트들이 아이들에게는 신선향으로 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후 분반 성경공부가 이어지고 함께 교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 하시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청소년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 보다 더 기뻐 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속에 청소년들의 의식이 새롭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곳 피이에서 1100km나 떨어져 있는 남아공의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코스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피이 한인 청소년회에서는 전원 그 대회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고 아이들만 버스를 이용하여 대회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22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오고 가는 시간 속에 아이들은 무섭도록 결속되어 서로를 챙기고 돋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3박 4일의 대회 그리고 이를 동안의 버스 여행, 그 여정을 마치고 돌아 온 아이들과 함께 드렸던 주일 예배에서 놀라운 아이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강사

들의 설교나 교육을 통하여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 졌다는 고백은 참석한 교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졌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은 피이 지역에서 시작 된 두번째 협력 사역입니다. 현재는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너무 미약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 사역이 장래에는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열망해 봅니다.

한국과 남아공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남아공 피이 한인 청소년 예배로 초대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 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 하는 현장으로 청소년들을 초대 합니다.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회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회는 중남부 아프리카의 16개국의 300여 가정의 선교사들을 섬기는 기관입니다. 매 1~2년의 기간에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것이 2003년 2회 대회 부터 인데 벌써 11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회에는 각 나라와 지역에 지역장을 두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 해 저에게 남아공 이스턴 케이프 주의 지역장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스턴 케이프 주는 남아공에 있는 9개 주 가

운데 가장 낙후 된 지역 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턴 케이프 주에 거주 하는 선교사의 가정은 10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후 5:18~19)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은 연합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가장 큰적, 그것은 분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은 곧 화목입니다. 화목치 못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올 해 12월에는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프레토리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위로 하시고 격려 하실 강사들을 통하여 모두가 다시 한번 화목케 하는 직분에 충실한 종으로 다시 서게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 대회를 위하여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에 함께 동참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OPEN DOOR

지난 해 탈북자의 피이 방문을 통하여 관계를 맺게 된 현지 선교 단체입니다. 탈북자들을 돋는 선교 단체에 매월 탈북자 선교를 위한 아주 적은 후원을 시작 하였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 합니다. 이들을 섬기는 이 기관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참 자유와 평화를 얻고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가정 소식

첫째. 큰 딸 영은이가 지난 해 대학에 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입학금을 마련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하여 큰 도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입학 하였습니다. 그 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며 깊이 머리 숙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영은이가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를 통과 하는 과정 가운데 학업과 학비를 마련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고 세번째 학



기의 등록을 마치고 9월 초부터 2학년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학년도 학업과 학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며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 일에 위하여 함께 기도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오직 한 분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 하며 바라 보는 길 이외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소원 합니다.

둘째. 지은이가 올 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MECA-TRONIC (로봇공학 또는 자동화 기계공학) 과를 선택하여 입학 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일차 서류 심사를 잘 통과 하였습니다. 현재는 예비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원한 대학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포트엘리자베스에 있는 넬슨 만데라 국립대학입니다. 일차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마지막 수능 시험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비 수능이라는 약 1달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치러지는 평가입니다. 요사이 밤 잠을 설치며 준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학기에 다시 한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마지막 수능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교육 과정은 한 국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아공의 수능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 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정을 한 달반 동안 예비수능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학기 중에 한 달반 동

안 본고사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르는 수능 시험은 과목에 따라 한 과목을 1~3번까지 치르는 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은이의 대학 입학과 학비의 마련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셋째. 막내 하은이는 ART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CARTOON NETWORK 케이블 티브이 기관에서 주관한 대회에서도 대상을 받기도 하여 큰 상금을 학교가 받게 하기도 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지금은 최근에 고등부분에서 더블 골드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한 지도를 한 것이 아닌데 아마 엄마의 재능을 닮은 것 같습니다. 장차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하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중이고 내후년이면 대학에 입학 하게 됩니다. 하은이의 앞 날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은경 선교사는 피이 한인 청소년 예배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현지인 청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그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한은경 선교사는 늘 건강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아니면 감당 할 수 없음을 고백 합니다.

저와 아내 한은경 선교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막내 하은이가 우리의 곁을 떠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예수생명교회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에서 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려면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 부부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은 지은 하은이에게도 한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모든 학업을 마치는 그 때에 세 딸들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세 딸들을 아프리카를 위로 할 위로자로서 정하시고 세 딸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심어 두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족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날을 기대 해 봅니다.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며

선교사의 사역은 보통 4년을 1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저희 가정이 선교지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13년이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벌써 선교사로서 3기의 마치고 4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뒤 돌아보면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 주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도록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회들을 붙여 주시고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험하였지만 끝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아낌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가 있었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결 같이 변함 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께 지면을 통해 깊이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지나 간 시련 속에 남은 일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고 갈 것인가 고민 하며 왔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사족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다 이 땅에서 물하자”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의 코사족을 섬기는 일, 그 일은 지금 시작되는 원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코사족의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그들과 삶을 나누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들의 영혼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위로 하는 위로자로 남은 생을 드리

기를 소원 합니다.

“물질과 지식으로 시간의 깊이와 무게를 사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루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코사족 가운데 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하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1. 코사족을 배우고 연구 하는 기관이 세워져 앞으로 일어 날 코사족을 섬기게 될 선교사들과 함께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비 하는 일
2. 비 바람과 햇볕을 막아 줄 수 있는 예배와 교육의 공간이 마련되어 예수생명교회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받아야 할 교육이 끊임 없이 진행 되는 일
3. 청소년 컴퓨터 교육을 통한 신앙교육의 장이 넓혀지는 일
4. 노숙자와 PROSTITUTE들을 더 많이 섬기고 동참 하는 일
5. 예수생명교회 아이들 가운데 저희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고 그 문이 열리는 일
6.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간의 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
7. 영은, 지은, 하은이가 모든 학업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 와 마음의 소원대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되는 일

신동주 이경면 선교사 7월 소식

필리핀 교육계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제가 대학 입학 전까지 지금까지는 10학년제였지만 앞으로는 12학년제로 바뀌게 됩니다. 국제적인 학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그 간격을 매우 기 위해서 올 해부터 입학생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아서 학생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새 학기라 캠퍼스를 누비며 수많은 학생들 틈에서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참 많음이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전도에 힘을 쓸게 됩니다.

지난 며칠사이에 필리핀은 연달아 태풍이 지나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2~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전기와 인터넷이 끊겨 불편한 생활을 잠시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인 듯싶습니다.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구 드리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개강

지난 6월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TTS-디모데훈련학교(학생훈련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는 학생들(비키, 제니퍼, 마이린, 미쉘)과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11시~1시) 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처음 전도를 시작 할 때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

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법 자신감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에 집중하는 자체들이 자신의 열심히 아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성숙한 태도로 바뀌어 지게 되기를 바라며, 학기 내내 이 전도모임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예수제자운동 전주지구 단기 선교팀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수제자운동 전주지구(대표: 김일지 간사) 총 7명이(학생 5명, 간사2명) 단기 선교훈련을 이곳 마갈랑에서 받았습니다. 훈련기간 중 태풍

이 이곳을 지나가서 7월 16일 예정되어 있던 전도집회를 하루 연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태풍의 나라 필리핀을 다녀간 많은 지구와 교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을 하긴 이번 팀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무더위와 물 공급(이 곳은 모터를 사용하여 물을 사용하고 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들에게는 선교지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전도 집회에는 아무리 많은 자체들이 참석을 해서 연결이 되어도 저와 예비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의 학생들만 초대를 하려고 생각 하고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도 집회 당일 120명정도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들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삶에 대한 권면과 도전, 소그룹 성경공



부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억 날 때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모임과 연결되고 캠퍼스 예배와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개척자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 땅을 밟고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며 현신한 전주지구 김일지, 문요한 간사와 지체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an Agustin MH Church 사역

요즘 교회사역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1명과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대학생 2명과 (저스틴, 메리 크리스천) 저희부부가 어른들입니다. 나머지 주일학교 학생들은 많게는 30명, 적개는 20명정도의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명은 중고등 학생들입니다.(까밀, 안젤리나, 라켈, 조날린, 수훈조)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마루와 릴리아 부



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8년동안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찬양을 다운받아서 함께 부르고, 설교할 때도 설교문을 스크린에 보여주는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양육하던 지체가(저스틴) 따같로그어 통역을 감당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어리지만 이 지체가(저스틴) 통역과 교회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음향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현당예식을 하면서 재정이 부족하여 음향시스템을 구입하지 못하여 그동안 마이크 없이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향시스템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주일예배는 30여명, 수요일 캠퍼스 예배 또한 20~30여명씩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향기기가 없어서 예배시간에 아이들과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전화: 070-8245-2948 / 카카오톡: Powerjdman

신동주선교사

앙겔레스 사역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전체사역을 책임지고 사역하시던 윤종대 선교사가 정기이 8월부터 1년간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양소망교회는 이정환선교사가, 저는 캠퍼스사역과 전체사역을 조율하며 돌보며, 기도의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가 없는 소망교회가 성령의 돌보심 아래서 굳건히 서있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저를 위해 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을 하는 리더가 되도록 밀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요즘 아내는 밥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사는 지체들과(마이린, 제니퍼) 때때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밥을 준비하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때로는 매일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여 섬기는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내 경찬이는 이 번 학기부터 누나와 형이 다니는 학교 PRE-SCHOOL(유치원)에 다닙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아직 어려 영어가 아닌 따갈로그를 사용하여 친구들과의 관계문제로 힘들어 하였는데, 이제는 놀이



친구도 생겨 학교생활에 재미있어 합니다. 집에 오면 친구를 사귄 일, 누가 울었는지, 누가 써웠는지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리(4학년), 경희(2학년)이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리는 주일예배에 PPT를 담당하여 예배를 돋는 좋은 동역자로 있습니다. 경희이는 반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San Agustin MH 교회의 주일 예배를 소개하고 초대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땅 가운데 살아드리는 현신이 있기를 간구드리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2014년 7월 28일

신동주, 이경면

예리, 경희, 경찬드림

기독제목

1.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지체들이 소그룹에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도록
2. 주일 예배 통역을 담당하는 저스틴 자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3. 매주 수요일(11am-01pm)캠퍼스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4. 디모데훈련을 받는 지체들(마يل, 마이린, 비키, 제니퍼)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5. San Agustin MH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중·고등학생 모임과 주일학교 모임이 정착하도록

그 시간

(출32:1-6)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아론은 백성 앞에 일어나 있었다.

태국 정도연 선교사
2014.8.8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아론은 백성의 불만을 듣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설명하셨고
아론은 백성의 금 고리를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

하나님은 성막의 예배를 통해
백성을 만나 말씀하겠다하셨고
백성은 황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동안
백성은 일찍이 일어나
황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그 시간

여호와는 모세에게 증거판 들을 주셨고
아론은 황금송아지 앞에 축제를 벌였다.

모세와 아론은

광야를 함께 걸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다.

B국 서신

B국 주바울 선교사

필리핀 도착

평안하신지요? 한국에는 추석 연휴가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연구년차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소식이 늦었습니다. 처음에 임시 거처에 머물다가 그 후 집을 찾아서 이것저것 체류를 위한 일들을 보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제 생활을 위한 일들은 많이 준비되었고, 다만 인터넷이, 신청을 한지는 꽤 되었으나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속도와 관습에 맞추는 습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람을 겨냥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나 겉으로 보이는 이곳 사람들은 온순하고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곳의 삶이지만, 이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막내 형준이는 이곳에 있는 한국선교사자녀학교 (마닐라한국아카데미)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수준보다 높은 반에 배치되었다면서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선교사자녀들로 구성된 이곳에서의 생활이 분명 아이에게 큰 의미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머물면서 필요한 성경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B국의 차기 사역을 위한 좋은 준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적하시는 음성들을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만큼, 결국은 B국 신자들의 신앙과 삶, 선교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H시 균황

떠나오기 전,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일예배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설교자를 세우고, 장소도 미리 한 군데를 정해서 주일 몇 차례에 걸쳐서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씀 나누는 자체들이. 그 동안 부족한대로 제가 가르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중심을 잘 잡고 나누는 것을 보고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성서유니온 사역은 현지 위원들과 간사들이 잘 해가리라 믿습니다. 스스로 해가는 힘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해가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전 마지막으로 그들의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국성서유니온에서 진행하는 LTC 훈련에 한국성서유니온의 도움을 받아 보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간사 한 명씩 가서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북쪽의 그레이스 자매 간사가 들려준 고백을 통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큰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나눠준 글 한 마디 한 마디에 감동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주님의 충실하지 못한 종임에도, 그 동안의 저의 수고에 대해서 헤아려보게 되었다는 말을 할 때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차례입니다. 부디 주께서 이들을 사용하여서 B국 땅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소식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들에, 저희의 근황과 B국 사역의 회고 등을 나눌까 합니다. 그 동안의 사역 시간 속에서 선교의 작은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것이요, 또한 동역자님들이 함께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주의 선교사역에 참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역자님들의 생활 속에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9일

필리핀 안티풀로에서
주바울 드림

그 날에 해야 하는 몇 가지씩의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이 됩니다.

이 곳에 온지 막 삼 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피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서 밖에 있는 시간 중에 일부러 집으로 들어와 잠깐 동안 눈을 부치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요즘의 저를 볼 때 '마르다 같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저것 할 일이 많아 죽을 것만 같다'는 그녀의 말이 꼭 제 말 같습니다.

"네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너는 걱정하고 속상해하는구나"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말이야,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필요한 게 아닌데 말이다. 가장 중요한 한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어조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투를 상상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요즘 해리오에게 하는 말투의 정

확한 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이 제 삶에 없다면, 제가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 매일 매일 노력해서 얻어지는 언어 능력,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돋는 일,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 들을 사는 일, 이 모두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텐데..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순간 순간 주어지는 짧은 기쁨으로 만족하고 살 수 없을텐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지은 여자가 그 비싼 향유 향아리를 들고 간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을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공허와 상실감은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일으켰고, 일단 그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을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현장에서 본 예수를 향한 푸대접과 예수의 흙먼지 묻은 더러운 발이 그녀의 눈에 꽂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상실감이 크면 클 수록 예수의 발을 보면서 느꼈던 복받치는 감정은 그녀를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고 급기야 그 향아리를 사용하게 했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창의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한가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헤집고 나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시끄러운 속이 그 앞에서 잠잠해 지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해리오에겐 1년을, 남편에게는 3개월의 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리오의 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저는 1년 비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류양이 많아 적잖이 놀랐습니다만,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브루나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5일을 짹채워서 갔다왔는데, 그동안 운전을 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얼마나 무섭던지, 남편이 떠나기 전 2주 동안이나 연습했는데도 하루 종일 뛰는 심장으로, 부담감으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아침엔 출근 길이라, 이 곳에서 아주 흔한 로터리는 그야 말로 전쟁입니다. 들어갈 때와 빠져 나올 때 필요한 판단력, 과감성은 저에게는 절대로 없는 성질의 것

으로서 아침 등교길에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정말 시끄럽게 운전을 했습니다. 희안하게 첫 날도 둘째 날도 저의 오른 쪽에는 큰 밴이 저를 에스코트 해주더라고요. '내가 막아줄 테니 어서 들어서!' 하는 듯이~~ 저는 '고마워, 밴!'을 외치며 로타리를 부드럽게 진입을 하고 제가 빠져 나가야 할 네 번째 출구가 되니 세번 째 출구에서 막 나오는 여려 대의 차들이 거의 정지 했다 싶을 정도의 서행을 하며 저의 전진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탄 차가 지나갈 때 나머지 차들이 정렬해서 그 차의 진행을 돋듯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일까요? 남편이 없는 동안 제가 로터리를 운전할 때의 경험은 정말 '주의 날개 아래'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릴 적 듣던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라는 음악이 딱 떠오르는 그런 광경들이었죠. 제가 잘 날(운전 할 ^) 수 있도록 날개 아래 바람으로 저를 지탱해주는 주님의 보호하심과도 같은 그렇게 5일은 지났습니다. 저의 운전 실력은 일취월장을 했지요. 그리고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의 비자를 떡 하니 받아서 말입니다.

"뿌지 뚜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동안 비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손 모아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또한 저희처럼 기뻐해주셔서 감격이었습니다.

조급증은 어디에서 오는걸까?

이 곳의 언어 상황은 정말 정말 독특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레이어의 네이티브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표준(공식) 말레이어를 공식 언어로 정해 놓았고, 학교에서 몇 가지 과목을 제외하고는 표준 말레이어로 과목을 가르칩니다만(중국, 인도, 이반 민족은 자신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곳은 각자의 모국어가 있고 또 한 로컬 말레이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 갈 땐 같은 사라왁 주 안에서도 로컬 말

레이가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나마 교육 받은 사람들이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눌하게나마 사용하는 표준(공식) 말레이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았기에 저희 브랜치에서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에 자신이 사역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를 한 가지 이상씩 또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 보니, 표준 말레이어를 잘 구사하는 경우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바주만 하더라도 저희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 마음 속에 의아함, 불만족, 두려움, 걱정...이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방언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중첩된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도전이지만, 감사일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애쓰면 되는 것인데, 그런 감정들이 밑바닥에 있다 보니, 긴 안목을 가지고 숨 고르기를 하기 보다, 한 번에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다 빼내어 버려 몇 번이 발길질도 채 못하고 호흡하기에 바빠 속도는 커녕, 금새 숨만 차게 되는 초보 수영자의 면모를 여실 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연습 부족과 자신감 부족으로 발길질 몇 번에 흡 한번하며 몸에 있는 힘을 빼고 천천히 수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난 8월은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 시간들이었네요. ㅠㅠ

해리요 이야기

요한이는 요즘 내내 달리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은 달리기에 자신이 있는데, 자신이 보기엔 자기가 반에서 절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말레이어를 몰라서 달리기 대회를 뜯나간다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준비! 정렬! 출발! 이런 구호들을 말레이어로 하는데 자신이 보기엔 알아듣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말레이어로 몇개만 외우면 안돼?" 그랬더니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완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눈이 동그라 가지고 저에게 말하네요. 해나는 "엄마,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저한텐 공을 안줘요!" 리나는 "엄마, 친구들이 살짝 저를 무시해요~" 요한이는 "아이들이 저 보고 바보라고 놀려요!"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가서 말이 안 통하니,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 마음이 짠 하다가도, 잘 이겨내며 강하게 자라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나

후원 안내

외환은행 303-04-00019-349 예금주) 엄하늘 진리안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저희 가정의 가상 계좌 번호입니다.
후원을 처음 하실 때에는 송금 전 또는 후에,
성경번역 사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재정 담당자와 통화를 해주세요.
재정 담당자 070-8670-6360 | 홈페이지 / <http://gbt.or.kr>

연락처

인터넷 전화 070-8265-7357
이동 전화 +60 11-1607-1046 (엄) | +60 11-1607-1084 (안)
전자 우편 chonsue@naver.com / sueaahn@naver.com
페이스 북 <http://www.facebook.com/sueahn>
카톡 아이디 / skyum (엄), sueaahn (안)

마 이렇게 표현해주시니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남편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그립니다. "나들이 했던 말과 이 시간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셨는지, 저절로 너희들이 힘든 시간을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너희가 잘 자랐는지를..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 그 대화를 한 정확히 6개월 뒤를 알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는 날"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함께 하며

1.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넉넉하며 건강하게 1달 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시각과 품성을 조금씩 배워가며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고 소명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일상 생활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언어를 배우는 데 더 잘하고 싶어 하고, 더 빨리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보다, 주위의 관계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로 살아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자녀들을 잘 가르칠 품성도 시각도 넉넉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녀를 통하여 발견하고 돋는 자로 옆에서 그들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 파송 교회인 수원 서문교회 안에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견고한 믿음의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서 목사님과 함께 주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 양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지원군들로 더욱더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로스톱 나 다누 | 김우섭 선교사



- 신축된 건물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로 그리고 현지 교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처럼 사용되도록.

- 승합차 구입을 위해 약 2킬로미터 이상 비포장 도로를 걸어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
- 신학생들이 바른 신학적 기반 위에 서고, 또한 영적 열정으로 가득 차도록
- 열방교회를 위해
- 목사 안수식을 위해 (김 라지온 강도사)
- 지민, 지수가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 가도록

몽골 | 황필남 선교사 | www.pnhwang.com



- 몽골에 건축중인 생명의 샘물교회가 잘 완공되고 교회가 속적증가와 영적성장위해
- 참 제자, 참 신앙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 와싱톤 몽골교회, 버지니아 크리스챤대학교 몽골인 학생들의 거듭남과 영적성장위해

- 2015년 1월에 있을 몽골인을 위한 유럽 단기 선교를 여행준비를 위해 /6명예정/

남아프리카공화국 | 배성호 선교사

www.josephbae.com



- 코사족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관이 세워져 앞으로 일어 날 코사족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비 하는 일
- 비 바람과 햇볕을 막아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예수생명교회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받아야 할 교육이 끊임 없이 진행 되는 일
- 청소년 컴퓨터 교육을 통한 신앙교육의 장이 넓혀지 는 일
- 노숙자와 PROSTITUTE들을 더 많이 섬기고 동참 하는 일

- 예수생명교회 아이들 가운데 저희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일
-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간의 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일
- 영은 지은 하은이가 모든 학업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 와 마음의 소원대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로 하는 위로자 살아가게 되는 일

러시아 연해주 | 정태화 선교사

- 이미 확보된 우수리스크 교회 부지에 아름다운 예배



당이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 새로운 개척지 노보기울기프까에 건물과 땅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잘 수리되어 예배를 시작하게 하소서
- 매달 한주씩 이루어지는 리더 세미나를 통해 힘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한 성장하게 하소서
- 선교하는 교회로 성숙되게 하소서
- 리더십 이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필리핀 양겔레스 | 신동주 선교사

- 10월 29일-31일까지 리더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리더들이 하나님을 더깊이 알아가고 신앙을 회



- 복할수 있도록
- 신동주선교사 가정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가 되어 필리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 따갈로그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에 대한 지혜를 주시도록
 - 양육하는 캠퍼스의 젊은 학생들이 주인이요,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도록

B국 | 주바울 선교사



- 연구년으로 필리핀에서 충전되는 시간을 보고, 제3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현지 MK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막내 형준이의 적응과 학업을 위하여
- B국에 두고 온 주일사역과 성서유니온 사역들이 잘 이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 송찬송 선교사

- 하루 하루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 열방이 행복한교회 어린이와 성도들이 복음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 뻥튀기 사업을 통하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 기독의 동역자, 사역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MK들에게 50%~100% 장학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상 그만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MK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손길이 그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들을 돌보는 기숙사사감 (돔페어런츠)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원어민 교사들과 모든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A국 | 김아굴라,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1. N도시에 청(소)년 수련회 후에 새롭게 형성된 젊은 그룹에게 현지리더를 붙여서 양육 중

에 있습니다. A지방에 소재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현지 공동체에게 위탁해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2. J시에 소재하는 마르카즈교회 (집시교회)에 14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새로 운 부흥을 주시고 더 깊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지고, 리더인 메*치&닐*파르 부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더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집시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집시공동체가 생성되도록

3.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4. 최브리스가 사역자가 팔과 어깨가 많이 아픈데 치료 받고 있는데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5. MK 예지(25세), 인지(21세), 원지(17세), 현지(14세)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각자의 선물을 섬길 수 있도록.

6. 네 딸의 학업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큰딸(예지): 우국에 입국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이곳에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둘째(인지): 2학기에도 캠퍼스에서 늘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2학년때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세째(원지): 학교에서 유비티제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고2과정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현지어와 영어에 진보가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된 책을 많이 읽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네째(현지): 다니는 학교에서 유비티제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8학년 과정에 진입하여 더욱더 러시아어와 영어에 큰 진보가 있고 신양생활과 학업에 새로운 계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M국 | GBT(성경번역) | 염하늘, 진리 안 선교사

1. 지난 시간 동안 인도 해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 드리며, 함께 동역해 주신 파송 및 협력 공동체,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 언어를 배우는 것에 집중하여 이곳의 문화와 삶에 이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도록

3. 향후의 사역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4. 현재 우리 가정이 속한 단체가 비자를 위해 이곳의 주 정부에 등록을 하려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5. 해리요가 이곳에서 하늘 나라 시민으로 갖추고 배워야 할 것을 우선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6. 다섯 식구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도록

7. 파송하고 함께 동역하는 수원 서문 공동체에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파송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8. 양가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도록

이스라엘 | 원두우 선교사

1. 교회 사역(예루살렘교회) 베들레헴 어린이 사역과 현지 동역자 및 사역자들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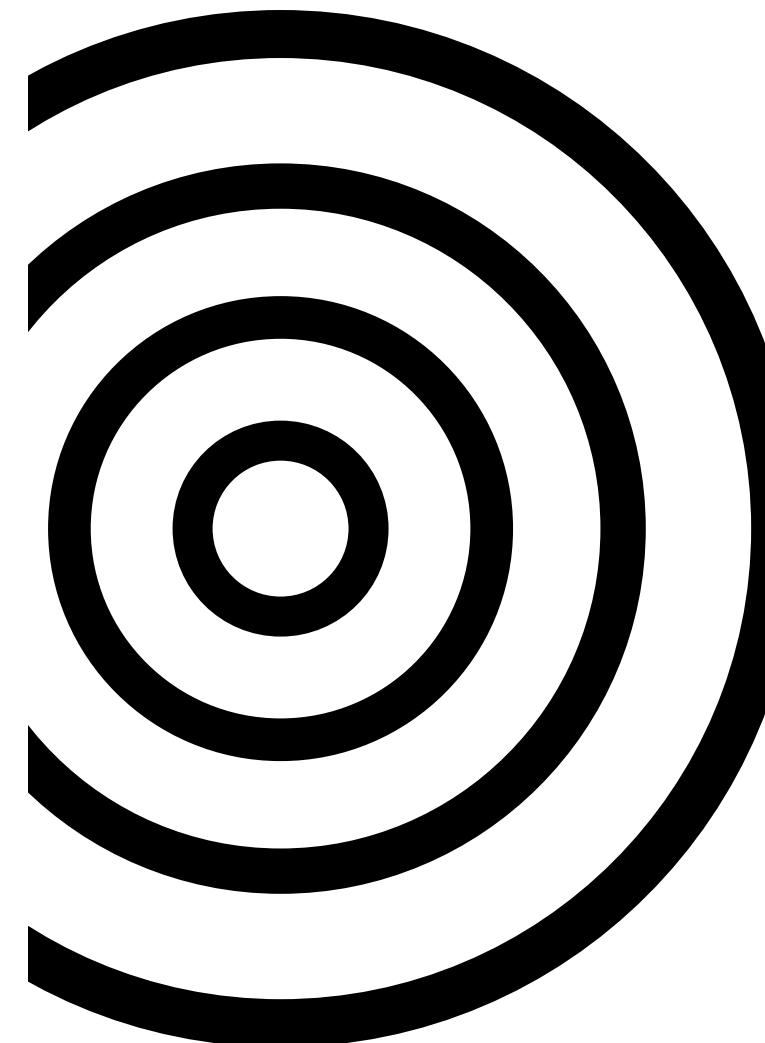
2. 고대근동연구원: 성지연구와 개발사역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과, 베들레헴 시청과 협력하여 개원을 준비중인

태권도 도장을 위해서

3. IT 사역: PaSS Project(2015-2019)를 잘 준비하도록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4가을호 출간

2014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가을 호 (통권18호) “선교사의 친구되기 -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요와 실제” 가 출간 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책자나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mail : jino0920@hanmail.net

2. 쇼브링 파브릭스 “세상 끝 교회”예배당 신축봉헌

2013년 몽골 아웃리치를 통해 쇼브링 파브릭스 지역 세상끝 교회 성전을 짓기로 소원하며 같이 기도해주신 동역자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예음교회와 동역한 아웃리치 팀을 통하여 물자를 전달케 하시고 한달 반만에 교회가 완공되어 지난 7월 현당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새성전을 통하여 세상 끝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 2014 Universal Care 리트릿

2014년 10월 9일(목)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 (요 17:23)는 주제로 강화 그레이스 힐 연수원에서 정태화 선교사님을 강사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Universal Care 열방기도회 (토요일 오전7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연세U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5. 후원 및 동역 안내 신한은행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Universal Care 와 재정적으로 동역하고 후원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6. 선교사 동정

- 1)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10월 9일~ 10월 13일 일정으로 한국내 몽골인 교회 부흥회와 몽골 생명의 샘물교회 현당예배 참석차 한국과 몽골의 바쁜 일정으로 방문하셨습니다.
- 2) 정태화 선교사님께서는 지난 10월 7일 2주간 일정으로 UC 정기예배 및 리트릿 인도 및 디브리핑 세미나 참석차 한국에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 3) 러시아 로스톱 김우섭 선교사님이 그동안 건축중이었던 신학교가 완공되어 10월 말 현당예배를 드립니다. 이 신학교를 통하여 러시아에 건강한 신학적 토대위에 교회들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 4) B국 주바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연구년을 시작하셨습니다.
- 5) 캄보디아 송원식 선교사님이 따님 결혼식과 치료차 한국에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7. 제20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5시

장소 : 부천 예음교회 본당

강사 : 정태화선교사 (연해주 우스리스크 선교사 UC 고문)

찬양인도 :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흥성훈, 정경미, 권현주 김병광 박말향 양태부, 최미영, 김명자, 신현우, 흥순향, 박현식 최선주, 김세웅 신경숙, 박정은, 장순덕, 권찬우, 정명자, 이은실 정진호, 최혜원, 송도 맑은샘 음악학원, 벤엘교회, 연세U치과 | 장소후원: 예음교회

기도제목

1.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참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4.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5. Universal Care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가 형성되게 하소서.
6. 2015년 UC 한인선교사 리트릿을 준비하는데 그 길을 여시고, 그 비전과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7. 북한 땅에 우상을 헐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2009년 6월 23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돋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10명의 선교사와 1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나랑체첸, 트무르 전도사, 선교신학대학교 앵크체첸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적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 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긍휼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단

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길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더 안정적으로 Support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 현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이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발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후원 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양겔레스
주바울	선교사	B국
엄하늘	선교사	GBT선교회
송찬송	선교사	캄보디아
김아굴라	선교사	A국
원두우	선교사	이스라엘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ANCA) MK국제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몽골 장로교 신학교 : 트무르 전도사
몽골 으른고비신학대학 : 알탕 체체크 전도사
몽골 후레 대학교 앵흐 자르길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